

유라시아대륙 프로펠러형 재갈멈치의 특징과 기원에 대해

About the characteristics and origin of
the propeller-shaped bits on the Eurasian
continent

정석배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융합고고학과 교수

I. 머리말

II. 프로펠러형 재갈멈치의 분포현황

III. 프로펠러형 재갈멈치의 형태적 특징과 기원 문제

IV. 맺음말

국문 요약

한국에서 프로펠러형 재갈멈치의 기원 문제는 마구와 관련하여 중요 논점 중의 하나였다. 그것은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출현한 재갈멈치가 바로 프로펠러형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프로펠러형 재갈멈치는 한반도를 너머 중국지역과 바이칼호 남쪽 지역, 알타이지역, 그리고 서쪽으로 환흑해 북부 드네프르강 유역까지의 광대한 영역에서 사용되었다.

이 글에서는 각 지역 프로펠러형 재갈멈치의 발견 현황을 소개하였고, 또 프로펠러형 재갈멈치의 형태적 특징을 분석하여 형식분류를 시도하였다. 익단이 뾰족하게 점으로 마무리되는 점익단(點翼端)을 가졌는지, 둥글거나 뾰족한 선으로 마무리되는 선익단(線翼端)을 가졌는지, 익부(翼部)의 형태는 어떠한지 등 익단과 익부의 형태에 주목하여 형식분류를 하였다.

각 형식 프로펠러형 재갈멈치에 대한 지역적 분포양상은 프로펠러형 재갈멈치들이 강한 지역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예를 들어, 본고의 A 그룹 I 형식과 B-1 그룹 및 B-2 그룹 I 형식과 II 형식 재갈멈치는 카스피해 서쪽의 돈강 중류-볼가강 하류 지역, 북코카서스 쿠반강 유역, 환흑해 북부 드네프르강 유역에서만 발견되었다. 또한 A 그룹 III 형식과 B-1 그룹 VII 형식은 한반도에만 분포하는 특징적인 형태의 프로펠러형 재갈멈치임이 확인되었다.

프로펠러형 재갈멈치는 기원전 6세기 말 무렵에 쿠반강 유역에서 이미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기원전 5세기에는 그 외 드네프르강 유역과 돈강 중류-볼가강 하류 지역에서도 사용되었고, 또 알타이지역에서는 기원전 6세기~기원전 3세기에 발전한 파지리크 문화에서도 사용되었다. 프로펠러형 재갈멈치의 시원적인 형태는 기원전 8~7세기 혹은 기원전 7세기 말~기원전 6세기 초로 편년되는 알타이의 보이드이-캄-2 고분군 출토 3공식 재갈멈치에서 찾을 수 있었다.

한반도에서 발견된 프로펠러형 재갈멈치는 동일 형식이 알타이의 흥노 시기 얄로만-2 고분군, 바이칼호 남쪽 흥노 시기 데레스뚜이 고분군, 전국시대 연하도 유적, 부여 시기 서풍 서차구 고분군에서 찾을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알타이지역에서 발생한 프로펠러형 재갈멈치가 한편으로는 연하도 유적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바이칼호 남쪽과 서풍-유수 지역으로 파급되었을 것이다. 한반도의 프로펠러형 재갈멈치는 시·공간적으로 가까운 서풍 서차구 유적 출토품과 관련이 깊다고 생각된다. 다만 점익단 프로펠러형 재갈멈치의 기원지는 북코카서스일 수도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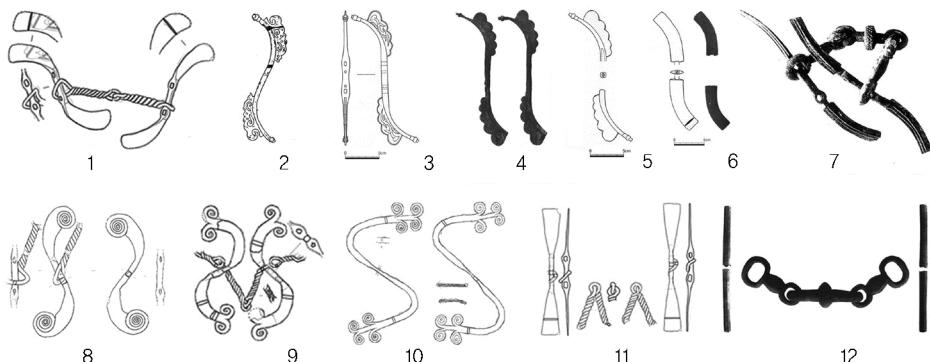
주제어 :마구, 재갈, 재갈멈치, 프로펠러형, 유라시아대륙

I . 머리말

한반도에는 기원전 2세기 말~기원전 1세기 초 무렵에 재갈이 등장한다. 국내 학계에 발표된 재갈에 대한 최근의 연구성과는 한반도 재갈의 변천 과정은 물론이고 제작 방법과 기능에 대해서도 많은 사실을 알게 한다(허미연 2014; 윤서경 2016; 노형신 2018; 정한나 2018; 황다운 2019; 이재혁 2022).

한반도 초기 재갈묘치의 종류로는 S자형(도면 1-1~10)과 노(櫓)형(도면 1-11)¹⁾ 그리고 직봉(直棒)형(도면 1-12)이 있다. S자형은 프로펠러형(도면 1-1), 날개 장식 S자형(도면 1-2~5), 날 장식 S자형(도면 1-6~7), 궐수(고사리) 장식 S자형(도면 1-8~10)으로 구분된다. 그중 프로펠러형 재갈묘치는 서북지역과 영남지역에서 공통으로 확인되고, 날개 장식 S자형과 날 장식 S자형 재갈묘치는 서북지역에서만, 노형과 궐수 장식 S자형 재갈묘치는 영남지역에서만 사용되어 지역적 차이를 보인다(윤서경 2016: 그림 27 및 29 참조).

영남지역의 경우 프로펠러형 재갈묘치는 기원전 1세기~기원후 1세기, 노형 재갈묘치는 기원전 1세기 중엽~기원후 2세기 중엽, 궐수 장식 소형 S자형 재갈묘치는 기원전 1세기 후엽~기원후 2세기 후엽, 궐수 장식 대형 S자형 재갈묘치는 기원후 2세기 중엽~3세기 중엽으로 각각 편년된다(윤서경 2016: 표 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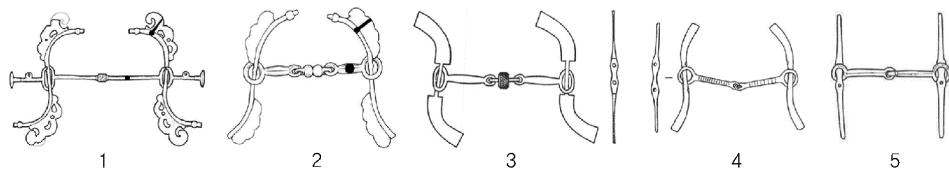


[도면 1] 한반도 지역 기원전 2~서기 3세기의 재갈묘치 각종(윤서경 2016 참조 및 재편집)

1. 프로펠러형(창원 다호리 69호), 2, 3. 투조 날개 장식 S자형(평양시 정백동 37호, 평양시 석암리 219호), 4, 5. 비투조 날개 장식 S자형(평양시 석암리 219호), 6, 7. 날 장식 S자형(평양시 석암리 219호, 석암리 9호), 8~10. 궐수 장식 S자형(울산 청평동 810번지 2호, 경주 사라리 130호, 경주 황성동 513·545번지 2호), 11. 노형(경주 화천리 251-1번지 5호), 12. 직봉형(평양시 정백동 127호)

1) 윤서경(2016)은 노형을 I자형으로 지칭하였으나, I자형에는 직봉형도 포함되어 이를 구분하였다.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로 본다면 노형은 흥노의 재갈멈치와 깊은 관련이 있다 (장은정 2012; 허미연 2014). 중국 한나라 관련 유적에서는 날개 장식 S자형(도면 2-1~2), 날 장식 S자형(도면 2-3), 판상 S자형(프로펠러형) (도면 2-4), 직봉형(도면 2-5)의 재갈멈치도 있는데, 한반도 발견 날개 장식 S자형 및 날 장식 S자형 재갈멈치는 중국 한나라 재갈의 범주에 속하는 낙랑 재갈멈치이다(윤서경 2016: 47). 이에 반해 절수 장식 S자 모양 재갈멈치는 한반도 영남지방에만 보이는 독특한 형식이다(허미연 2014: 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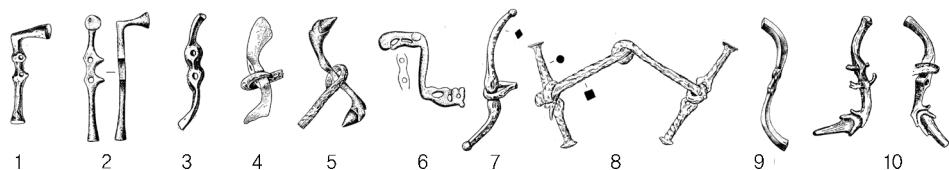
[도면 2] 한나라 재갈멈치 각종(윤서경 2016 참조 및 재편집)

1. 투조 날개 장식 S자형(강둔 한묘 41호), 2. 비투조 날개 장식 S자형(강둔 한묘 45호), 3. 날 장식 S자형(서교 한묘), 4. 판상 S자형(강둔 한묘 22호), 5. 직봉형(장안 빈의관 4호)

다만 프로펠러형 재갈멈치의 기원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부여 계통으로 보는 의견(신경철 1994), 알타이 계통으로 보는 의견(김두철 2000), 위만의 남하와 함께 서북지역으로 들어 온 것으로 보면서 연나라 계통이라는 의견(이상률 2008; 허미연 2014) 등이 제기되었고, 또 흥노유적에서도 프로펠러형 재갈멈치가 다수 출토되었음이 지적되었다(장은정 2012).

이것은 한반도라는 관점에서 검토한 프로펠러형 재갈멈치의 기원에 관한 의견들이다. 하지만 잘 알려져 있듯이 프로펠러형 재갈멈치와 S자형 재갈멈치는 유라시아 대륙의 다른 지역에서도 널리 사용되었다. 프로펠러형 재갈멈치는 S자형 재갈멈치의 한 세부 형식으로 분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V.G.뻬뜨렌꼬는 환흑해 북부 드네프르강 유역의 2공식 재갈멈치를 “ㄱ”자 모양(도면 3-1~2), “S”자 모양(도면 3-3~7), “버섯 머리 I”자 모양(도면 3-8)으로 크게 구분한 다음에 “S”자 모양은 다시 구멍 부분은 두껍고 나머지 부분은 단면이 원형 혹은 타원형인 것(도면 3-3), 구멍이 있는 가운데 부분은 8자 모양으로 두껍고 나머지 부분은 넓은 날 모양인 것(도면 3-4), 양쪽 끝부분이 말굽이나 동물의 머리로 장식된 것(도면 3-5~6), 양단에 “혹”이 있고 단면은 원형 혹은 능형인 것(도면 3-7)으로 세분한 적이 있다(뻬뜨렌꼬 1967: 36~37). “S”자 모양 재갈멈치는 그 외에도 단면이 방형인 것도 있고(일린스까야

1968: 도판 V-23) (도면 3-9), 또 다른 특징을 가진 것도 있다(일린스까야 1968: 도판 XVI-2~3) (도면 3-10).



[도면 3] 드네프르강 유역 2공식 재갈멈치의 종류: 빼뜨렌꼬 1967(1~8) 및 일린스까야 1968(9·10), 재편집

여기에서 “구멍이 있는 가운데 부분은 8자 모양으로 두껍고 나머지 부분은 넓은 날 모양인 것”이 바로 프로펠러형에 해당한다. 프로펠러형 재갈멈치는 “넓게 펴진 날 모양의 굽은 끝부분이 있는 S자 모양”으로 설명되기도 한다(마호르뜨이흐 2010: 62). S자형 재갈멈치는 기원전 5~기원전 4세기에 “트라키아부터 시베리아까지”的 유라시아대륙에서 유행한 것으로 지적된 바 있지만(빼뜨렌꼬 1967: 37), 북코카서스 울스키 고분군의 예를 통해 볼 때 기원전 6세기에도 이미 사용되었다(이반치크 외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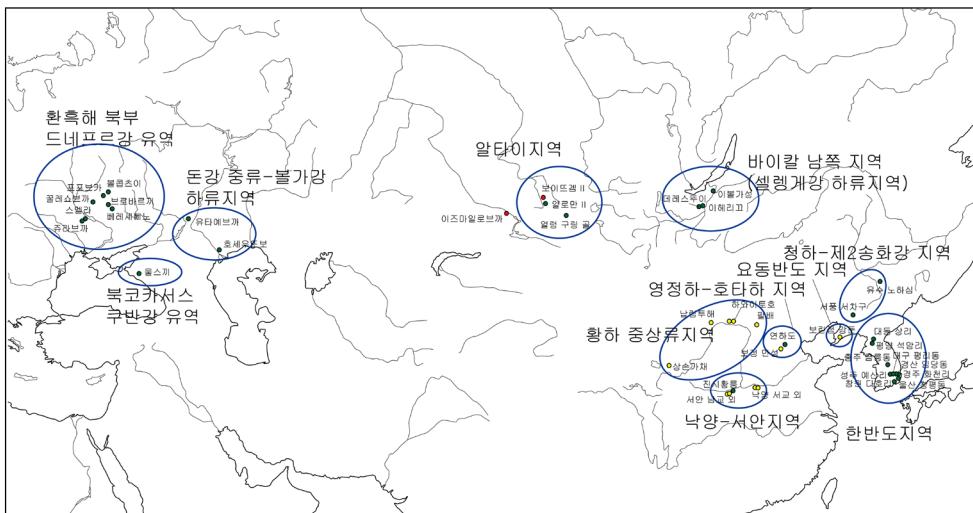
S자형 재갈멈치의 한 종류인 프로펠러형 재갈멈치는 유라시아대륙에서 가장 넓은 범위에 걸쳐 확인된다. 프로펠러형 재갈멈치의 중요 특징은 2개의 구멍이 있는 중심 부가 8자 모양을 이루면서 두텁고, 이에 반해 날개 부분은 납작하면서 그 중간 혹은 바깥 부분의 폭이 넓어지고, 위와 아래 날개 부분이 전체적으로 “S”자 모양을 이루며 굽었다는 점이다. S자형 재갈멈치는 모두 막대기 모양의 표비(鑲轡)에 해당한다.

한국학계에서 프로펠러형 재갈멈치의 기원 문제는 미구와 관련하여 중요 논점 중의 하나이다. 그것은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출현한 재갈멈치가 바로 프로펠러형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프로펠러형 재갈멈치는 흥노 이전 단계인 스키타이-파지리크 문화 단계에서도 사용되었고, 또 그 시원적인 형태는 알타이 및 인접 지역의 마이에미르 문화 단계에서까지 확인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한반도에서는 가장 먼저 출현한 프로펠러형 재갈멈치의 형식과 기원 문제를 유라시아대륙의 관점에서 살펴보겠다.

Ⅱ. 프로펠러형 재갈멈치의 분포현황

필자가 파악한 바로 프로펠러형 재갈멈치는 한반도 외에도 청하-제2송화강 지역, 요동반도 지역, 영정하-호타하 사이 지역, 낙양-서안 지역, 황하 중상류 지역, 바이칼 남쪽 지역(셀렝게강 하류 지역), 알타이지역, 돈강 중류-볼가강 하류 지역, 북코카서스 구반강 유역, 환흑해 북부 드네프르강 유역 등에서도 발견된다(도면 4). 프로펠러형 재갈멈치의 그림이나 사진이 제시된 유적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겠다.



[도면 4] 유라시아대륙 프로펠러형 재갈멈치의 분포현황(필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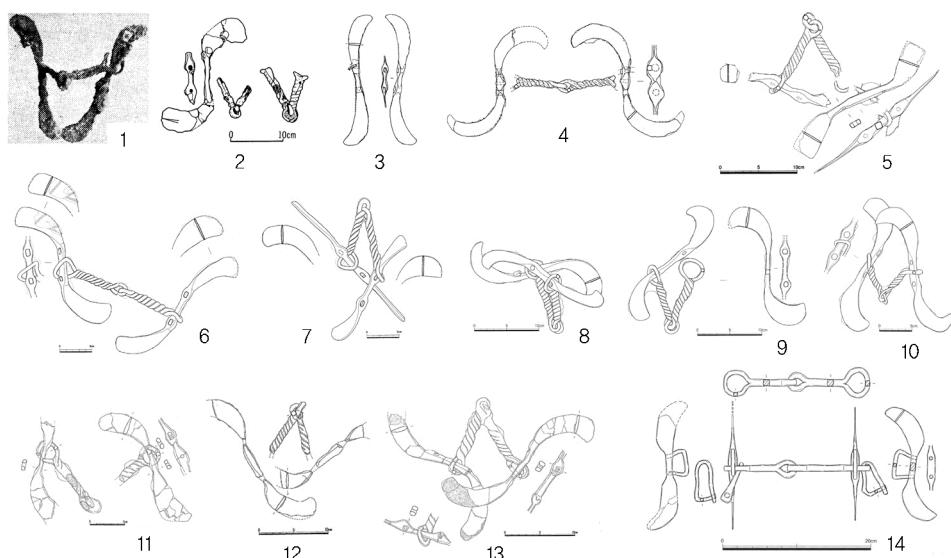
1. 한반도 지역

1) 평양 석암리 목곽묘

1962년에 평양시 낙랑구역 석암리에서 건설 공사 도중 발견된 무덤에서 화분형 토기, 청동제 세형동검, 을자형 동기 등과 함께 철제 프로펠러형 재갈멈치가 철제 2연식 재갈쇠와 결합된 상태로 출토되었다. 유물의 사진만 흑백으로 제시되었고(백련행 1965: 그림 2-1) (도면 5-1), 크기나 다른 사항에 대한 보고내용은 없다. 유물은 현 지표 아래 4m 깊이에서 발견되었으며, 묘광의 서남쪽 바닥으로 보이는 곳에서 판자 썩은 자리가 50×50cm 정도 남아있었다. 낙랑군 이전 위만조선 유적으로 보기도 한다(윤서경 2016: 42).

2) 대동군 상리 목곽묘

1932년에 평안남도 대동군 용악면 상리에서 철도 공사 중에 발견되었다. 유적은 평양에서 동북쪽 20km 떨어진 대동강 지류에 면한 구릉 기슭에 위치한다. 지하 0.9~1.2m 깊이 3×4m의 범위에서 다수의 유물이 발견되었으며, 바닥에서 목질 부식 흔적이 발견되어 목곽묘였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세형동검, 철제 검과 창 등 다수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편 상태인 철제 재갈멈치와 재갈쇠도 출토되었는데, 재갈멈치는 복원도가 있다(윤무병 1996: 도 18) (도면 5-2). 낙랑군 이전 위만조선 유적으로 보기도 한다(윤서경 2016: 42).



[도면 5] 한반도 발견 프로펠러형 재갈멈치

1. 평양 석암리 목관묘(백련행 1965: 그림 2-1), 2. 대동군 상리 목곽묘(윤무병 1996: 도 18), 3,4. 대구 평리동(윤용진 1981: 그림 15,16), 5. 성주 예산리 유적(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5), 6~10. 청원 다포리 유적(국립중앙박물관 2012, 국립김해박물관 2013, 국립김해박물관·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4), 11~13. 경산 임당동 유적(한국문화재보호재단 1998), 14. 충주 금릉동 유적(충북대학교박물관 2007: 그림 95-2)

3) 대구 평리동 일괄 유물

1974년에 대구 평리동 와룡산 기슭에서 발견되었다(윤무병 1996: 251~265). 유구는 모두 파괴되어 알 수 없다. 청동제 세형동검 등 다수의 청동제 유물과 함께 청동제와 철제의 재갈이 발견되었다. 재갈멈치는 모두 프로펠러형이며, 2공이다. 청동제 재갈멈치는 2쌍에 해당하는 4점이 발견되었는데 2점이 도면으로 제시되었다(도면

5-3). 길이는 19.3cm이다. 재갈쇠는 철제였던 것으로 판단되었다(윤용진 1981: 그림 15). 철제 재갈멈치는 1쌍에 해당하는 2점이 발견되었는데 길이가 20.5cm이다(도면 5-4). 철사를 꼬아 만든 재갈쇠는 길이 약 20cm이다(윤용진 1981: 그림 16).

4) 창원 다호리 유적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다호리 232번지 일대의 구릉에 위치한다. 목관묘로 추정되는 1992년에 발굴한 69호와 70호 무덤, 2011년에 발굴한 119호 무덤 및 2012년에 재발굴한 104호 무덤에서 각각 다수의 다른 유물과 함께 프로펠러형 재갈멈치를 부착한 재갈이 출토되었다.

다호리 69호 무덤에서는 철제 재갈이 1쌍 출토되었다(도면 5-6). 재갈멈치는 프로펠러형이며, 2공이다. 구멍의 간격은 5.5~5.8cm, 길이는 21.8~22.7cm이다. 재갈쇠는 3조 꼬기로 제작하였고, 2연식이다. 외환 안에 재갈멈치가 들어가 있다(국립중앙박물관 2012: 395~403).

다호리 70호 무덤에서도 철제 재갈이 1쌍 출토되었다(도면 5-7). 재갈멈치는 프로펠러형이며, 2공인데 간격이 5.5cm이다. 길이는 25.2cm와 19.0cm이다. 재갈쇠는 3조 꼬기로 만들었고, 2연식이다. 외환 안에 재갈멈치가 들어가 있다. 길이는 11.9cm와 11.4cm이다. 그 외에도 작은 편 상태 프로펠러형 재갈멈치가 하나 더 출토되었다(국립중앙박물관 2012: 404~413).

다호리 104호 무덤에서는 철제 재갈이 2쌍 출토되었다. 재갈멈치는 모두 2공의 프로펠러형이며, 재갈쇠는 3조 꼬기한 2연식이다. 재갈멈치와 재갈쇠가 함께 연결된 채로 발견된 재갈은 재갈멈치 길이 16.7~18.5cm, 너비 0.9~2.6cm, 두께 0.2~0.9cm, 두 구멍 간격 4.5cm이고, 재갈쇠는 길이 22.1cm, 재갈쇠 두께 0.5cm이다(도면 5-8). 다른 1쌍은 재갈멈치 길이 18.2cm, 너비 0.7~3.1cm, 두께 0.3~0.7cm, 두 구멍 간 거리 5cm이며, 재갈쇠 길이는 22.5cm, 재갈쇠 두께 0.5cm이다(도면 5-9). 104호 목관묘는 기원전 118년 오수전 주조 이전까지 사용된 중국 한의 동전인 반량전 및 공반 유물을 통해 기원전 1세기 전·중엽으로 편년된다(국립김해박물관·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4: 18~43, 221).

다호리 119호 무덤 출토 철제 재갈의 재갈쇠는 3조 꼬기한 2연식이며, 길이는 16.5cm, 두께는 0.5cm이다(도면 5-10). 프로펠러형 재갈멈치는 길이 20.5cm와 20.6cm이고, 너비는 0.9~3.1cm, 두께는 0.2~0.9cm, 두 구멍 사이 간격은 3.3~3.8cm이다. 다

호리 119호 무덤은 기원전 1세기로 편년된다(국립김해박물관 2013).

5) 경산 임당동 유적

경상북도 경산시 임당동의 낮은 구릉에 위치한다. 1996년에 발굴되었다. 목관묘로 추정되는 A-I-96호, A-I-139호, A-I-145호 무덤에서 각각 다수의 다른 유물과 함께 프로펠러형 재갈멈치가 부착된 재갈이 출토되었다.

경산 임당 A-I-96호 묘에서는 철제 재갈이 1쌍 출토되었다(도면 5-11). 재갈멈치 하나는 전체 형태가 거의 확인되었다. 2공이며, 길이 22.4cm이다. 재갈쇠는 철사를 꼬아 만든 2연식이고, 외환 안에 재갈멈치가 들어가 있다. 잔존 길이 23.2cm이다(한국문화재보호재단 1998: 190~193).

경산 임당 A-I-139호 묘에서는 무덤구덩이의 서쪽 주구 내에서 철제 재갈 1쌍이 출토되었으나, 잔존 상태가 좋지 못하다. 재갈멈치는 프로펠러형이며, 철사를 꼬아 만든 재갈쇠는 2연식(도면 5-12)이다. 재갈쇠의 잔존 길이는 15.0cm이다(한국문화재보호재단 1998: 284~287).

경산 임당 A-I-145호 묘에서는 1쌍의 철제 재갈이 출토되었다. 재갈멈치는 프로펠러형이며, 2공이다(도면 5-13). 끝부분이 일부 결실되었을 수도 있는데 길이는 29.4cm이다. 재갈쇠는 철사를 꼬아 만들었고, 외환에 재갈멈치가 들어가 있다. 원래 목관 위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었다(한국문화재보호재단 1998: 299~301).

6) 성주 예산리 유적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예산리 낮은 구릉에 위치한다. 2002~2003년에 발굴되었다. Ⅲ-1호 무덤에서 철검 등과 함께 철제 재갈이 1쌍 출토되었다. 재갈멈치는 프로펠러형이며, 하나는 전체 모양이 확인된다(도면 5-5). 2공이며, 길이는 20.6cm이다. 재갈쇠는 철사를 꼬아 만들었고, 외환이 재갈멈치를 감싸고 있다. 2연식 재갈쇠 중 한쪽은 길이가 11.3cm이다(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5: 63~70).

7) 경주 화천리 (산251-1) 유적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산251-1번지에 위치한다. 2009~2010년에 발굴되었다. 5호 무덤에서 철제 노(櫓) 모양 재갈멈치 1쌍과 프로펠러형 재갈멈치 편이 다수 출토되었다.

프로펠러형 재갈멈치는 모두 편 상태이다. 단조 제품이다. 2공식이며, 재갈쇠는 외환만 일부 확인된다. 그 외에 꼬아 만든 재갈쇠가 3개 확인된다. 모두 2연식으로 생 각된다.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것은 한쪽 길이가 9.5cm이며, 다른 하나는 길이가 8.9 cm와 9.4cm이다(영남문화재연구원 2012: 51~61, 540~541).

8) 충주 금릉동 유적

충청북도 충주시 금릉동 277번지 일대에 위치한다. 2004년에 발굴되었다. 78-1 호 토광묘에서 다른 유물과 함께 철제 재갈이 1쌍 출토되었다(도면 5-14). 2연식 재 갈쇠에 프로펠러형 재갈멈치가 연결되어 있다. 재갈쇠 외환에 고삐쇠가 달려 있고, 재갈멈치 중심부의 2공에 입문(立閭)이 형성되어 있다. 재갈쇠는 9.8+11.1cm이며, 재 갈멈치는 잔존 길이가 15.6cm와 16cm이다(충북대학교박물관 2007: 158~164).

2. 청하-제2송화강 지역

1) 유수 노하심(老河深)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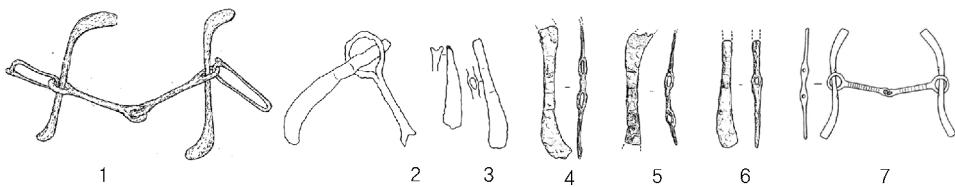
길림성 유수현(榆樹縣) 노하심촌(老河深村) 남쪽 500m 거리의 들판 낮은 둔덕에 위치한다. 1980~1981년에 발굴되었다(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編 1987). 3개 문화층 이 구분되었는데 하층에서는 청동기시대 서단산문화 주거지(2기), 중층에서는 부여 무덤(129기), 상층에서는 말갈-발해 무덤(37기)이 각각 조사되었다.

부여 시기에 속하는 6기의 무덤에서 철제 재갈멈치가 출토되었는데 온전한 것이 9점이다. 4개 형식으로 구분되었다. 그중에 3형식으로 구분된 것이 프로펠러형이다 (도면 6-1). 이 재갈멈치는 2공이며, 길이 17.4cm, 최대 너비 1.8cm, 최소 너비 0.8cm 이다. 철제 재갈멈치 중에는 노형, 직봉형, 날개 장식 S자형도 있다. 그 외 청동제 S자 형 재갈멈치도 발견되었다.

발굴 보고자는 유수 노하심 유적 부여 시기 문화층을 17호 무덤 출토 오수전(기원 전 2세기 말~기원후 2세기), 채집 사신규구경(기원 전후~기원후 2세기), 삽, 낫, 재 갈멈치(기원전 2세기~기원후 1세기) 등을 통해 기원 전후로 편년하였다(吉林省文物 考古研究所 編 1987). 이와는 달리 정상석은 이 유적을 토기의 조합 등과 동경, 동복 의 편년을 통해 기원전 1세기 초중반~기원후 1세기 중반 이후로 판단하였다(정상석 2012).

2) 서풍 서차구(西岔溝) 고분군(遼寧省博物館 外 編著, 2022)

요녕성 서풍현(西豐縣) 낙선향(樂善鄉) 집중촌(執中村) 서북쪽 산에 위치한다. 유적은 도굴이 많이 진행된 상태였다. 1956년에 63기 무덤을 발굴하였고, 도굴된 유물 다수를 회수하였다.



[도면 6] 청하-제2송화강 지역(1~6) 및 요동반도 지역(7) 프로펠러형 재갈멈치

1. 유수 노하심 유적(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編 1987), 2~6. 서풍 서차구 고분군(遼寧省博物館 外 編 2022), 7. 요동반도 강둔 한묘(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2013, 윤서경 2016 재인용)

철제 재갈멈치는 21점이 출토되었는데 모두 단조품이다. 그중 Aa형으로 구분된 3점은 S자형이면서 양쪽 끝부분이 넓어지는 프로펠러형이며, Ab형으로 구분된 1점은 양쪽 끝부분이 넓어지지 않는 S자형이다.

중구 제52정리구에서는 재갈멈치와 재갈쇠가 각각 편 상태로 함께 출토되었다. 재갈멈치는 잔존 길이 10.6cm이며, 비교적 좁은 나선장형(螺旋槳形)으로 보고되었다. 재갈쇠는 잔존 길이 9.4cm, 외환 직경 약 3cm이다(도면 6-2).

중구 제60정리구 476정리갱에서는 철제 재갈멈치가 부러진 상태로 출토되었다. 긴 것은 잔존 길이 10.4cm이다(도면 6-3). 착나선장형(翟螺旋槳形)으로 보고되었다.

그 외에 회수한 유물 중 철제 프로펠러형 재갈멈치 3점이 확인되는데, 각각 考 4049-7(도면 6-4), 考-4049-5(도면 6-5), 考 4049-4(도면 6-6)라는 일련번호가 부여되어 있다. 그중 考 4049-4 재갈멈치는 중구 제60정리구 476정리갱 출토 재갈멈치와 형태가 거의 동일하다.

서차구 고분군은 동경, 오수전, 반량전 등의 유물, 흉노문화, 한서2기문화 등의 자료를 통해 서한(기원전 206~기원후 8년) 조기 만단~서한 중만기 시기로, 중심연대는 서한 중기로 판단되었다(遼寧省博物館 外 編 2022: 504).

3. 요동반도 지역

1) 보란점시(普蘭店市) 강둔한묘(姜屯漢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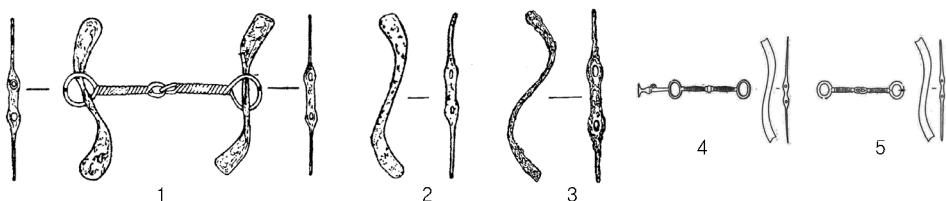
요령성 보란점시(普蘭店市) 강둔(姜屯) 일대에 위치한다. 22호 묘에서 금동제 재갈 1점, 41호 묘에서 금동제 재갈 6점이 출토되었다. 재갈쇠가 1연식, 2연식, 3연식으로 구분되었는데, 그림이 확인되는 2연식 재갈은 프로펠러형으로 볼 수 있는 “판상 S 자형”이다(도면 6-7). 재갈쇠는 길이 9.8cm, 재갈멈치는 길이 9.0cm이다(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2013, 윤서경 2016 재인용).

4. 영정하-호타하 사이 지역

1) 연하도 유적

하북성 이현(易縣) 동남쪽 2.5km 거리에 위치한다. 1929년에 첫 발굴이 이루어졌고, 1949년부터 1982년 사이에 본격적으로 발굴되었다. 연하도 유적의 규모는 동서 약 8km, 남북 4~6km이며, 크게 동성(東城)과 서성(西城)으로 구분된다. 철제 프로펠러형 재갈멈치는 모두 동성에 위치하는 무양대촌에서 발견되었다.

전국시대 중기로 편년되는 무양대촌(武陽臺村) 노야묘대(老爺廟臺) V호 지하항토건축유적 출토 철제 프로펠러형 재갈멈치 1점은 가운데 2개의 구멍이 있고, 길이는 20.4cm이다(河北省文物研究所 1996: 52~53, 도 28-6) (도면 7-2). 전국시대 만기로 편년되는 무양대촌 21호 작방(作坊) 유적에서도 프로펠러형 재갈멈치가 1점 출토되었다(도면 7-3). 이 재갈멈치는 가운데에 2개의 구멍이 있고, 길이는 16.2cm이다(河北省文物研究所 1996: 148~149, 도 89-4). 무양대촌 서쪽 부분에서는 철제 재갈이 1쌍 수습되었는데 꼬아 만든 재갈쇠(銜)는 길이 24cm이고, 프로펠러형 재갈멈치(鑣)는 길이 19.8cm이다(河北省文物研究所 1996: 816~817, 도 468-16) (도면 7-1).



[도면 7] 영정하-호타하 사이 지역의 프로펠러형 재갈멈치

1~3. 연하도(河北省文物研究所, 1996), 4, 5. 하북성 만성 한묘 1호(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1980, 윤서경 2016 재인용)

2) 보정시(保定市) 만성한묘(滿城漢墓)

하북성 보정시(保定市) 만성현(滿城縣)에 위치한다. 1호 묘에서 다수의 재갈이 출토되었는데, 그 중 “판상 S자형”도 확인된다(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1980, 윤서경 2016 재인용) (도면 7-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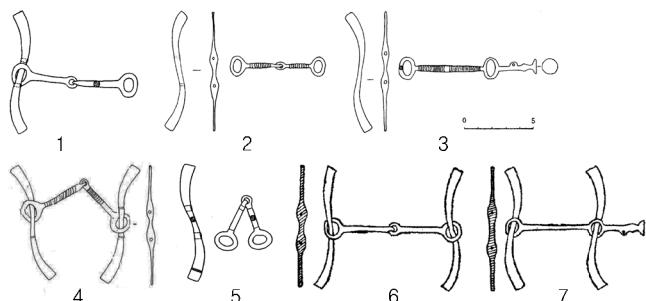
5. 황하 중 · 상류 지역

1) 납림투해(納林套海) 고분군

내몽고 중남부 파언뇨이(巴彥淖爾) 지구에 위치한다. 1992~1993년에 45기의 무덤이 발굴되었다(魏豎 編 1998: 12~51). 그중 42호 무덤에서 청동제 프로펠러형 재갈멈치와 2연식 재갈쇠가 출토되었다(도면 8-1). 재갈멈치는 길이가 9.1cm, 재갈쇠는 각 짹의 길이가 5.1cm이다. 42호 무덤은 사파식(斜坡式)의 묘도가 있는 전벽목곽묘 B형으로 분류된 무덤이다. 이 고분군에서 전벽목곽묘 B형은 제1기(서한 만기) 조단으로 편년되었다.

2) 소만(召灣) 51호 고분

내몽고 중남부 포두시(包頭市) 소만촌(召灣村) 서북쪽에 위치한다. 1982년에 발굴되었다(魏豎 編 1998: 203~214). 목곽 봉토분이며, 묘도와 갑실(甲室) 및 을실(乙室)로 구성되어 있다. 갑실에서 2쌍의 청동제 재갈이 출토되었다. 1쌍 재갈의 재갈멈치는 길이 9cm이고, 2공이다. 2연식 재갈쇠는 길이 7.3cm이다(도면 8-2). 다른 1쌍 재갈은 재갈쇠가 일절식(一節式)인데 양쪽 끝 부분에 둥근 고리가 있고, 한쪽에 개궁모(蓋弓帽) 모양 물건이 부착되어 있다(도면 8-3). 재갈쇠의 길이는 10.4cm, 재갈멈치는 길이 9cm이다. 재갈멈치는 모두 2공식이다.



[도면 8] 황하 중 · 상류 지역의 프로펠러형 재갈멈치

1. 내몽고 납림투해 고분군 42호(魏豎 編 1998), 2, 3. 내몽고 소만 51호 고분(魏豎 編 1998), 4. 내몽고 하와이 토호 고분군 6호 목곽묘(魏豎 編 1998), 5. 내몽고 팔배 고분군 3호(魏豎 編 1998), 6, 7. 청해성 상순가채 115호 (青海省文物考古工作隊 1981)

3) 하와이토호(下窩爾吐壕) 고분군

내몽고 중남부 포두시(包頭市) 하와이토촌(下窩爾吐村) 남쪽에 위치한다. 1993~1994년에 목곽묘와 전실묘 등 7기 무덤이 발굴되었다(魏豎編, 1998: 290~297). 그중 6호 목곽묘에서 청동제 재갈이 출토되었다(도면 8-4). 재갈쇠는 2 절식이며, 길이 10.2cm이다. 재갈멈치는 2공이고, 길이는 8.7cm이다. 6호 무덤에서는 서한 만기의 오수전(五銖錢)과 소명경(昭明鏡) 등 유물이 출토되었다.

4) 팔배(八拜) 고분군

내몽고 중남부 호화호특시(呼和浩特市) 팔배촌(八拜村) 동남쪽 4km 거리에 위치한다. 1995년에 3기 무덤이 조사되었다(魏豎編 1998: 308~313). 그중 파괴가 심한 3호 무덤에서 청동제 재갈이 출토되었다. 청동제 재갈멈치는 5점이 발견되었는데 모두 금동이며, 그림이 제시된 1점은 프로펠러형이다(도면 8-5). 이 재갈멈치는 2공이고, 길이는 9.2cm이다. 청동제 재갈쇠는 2점이 발견되었는데 모두 2절식이다. 금동이고, 전체 길이는 8.5cm와 7.1cm이다. 3호 무덤은 압형훈로(鴨形熏爐), 소명경(昭明鏡), 정(鼎), 오수전(五銖錢) 등의 유물을 통해 서한 만기로 편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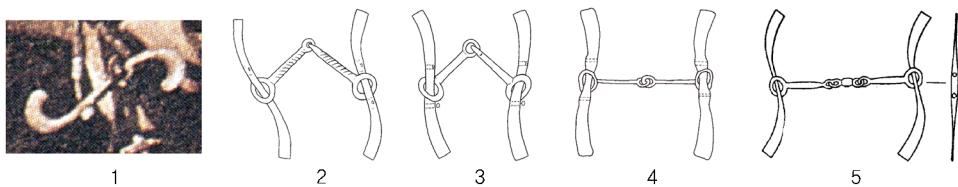
5) 대통(大通) 상손가채(上孫家寨) 115호묘

청해성 대통현(大通縣) 상손가채촌(上孫家寨村) 서북쪽에 위치한다. 1978년에 발굴된 상손가채 115호 무덤은 토광목곽묘이다(青海省文物考古工作隊 1981). 목간, 동전, 부뚜막 모양 명기, 마구 등 다수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이 무덤은 출토 동전 중에 서한 무제(武帝), 소제(昭帝), 선평(宣平) 시기의 오수전은 보이나 왕망(王莽) 시기의 것은 보이지 않아 서한 만기로 편년되었다. 차마구는 90여 점이 출토되었는데 모두 크기가 작은 명기(明器)로 보고되었다. 차마구가 명기인 사실은 출토 마연이 길이 10.6cm, 너비가 3.1cm인 사실로서 뒷받침된다. 재갈은 4쌍이 발견되었는데 그중 2 쌍이 “판상 S자형”이다(도면 8-6~7). 그중 1쌍의 재갈쇠는 길이 9cm, 재갈멈치는 길이 9.8cm이다(도면 8-6).

6. 낙양-서안 지역

1) 진시황릉

섬서성(陝西省) 서안(西安) 동북쪽 임동현(臨潼縣) 여산(驪山) 북쪽에 위치한다. 진시황릉 2호 병마용갱 출토품으로 소개된 말과 말고삐를 잡은 군인 테라코타 상이 있는데 그 말의 입에 물린 재갈쇠에 프로펠러형 재갈멈치가 부착되어 있다(도면 9-1). 말은 높이가 192cm이고, 코에서 꼬리까지의 길이가 203cm로서 거의 실물 크기로 생각된다(傳天仇 主編 1988: 사진 24). 진나라가 기원전 221~기원전 206년에 존재하였기에 이 유물은 기원전 3세기 말로 편년될 수 있을 것이다.



[도면 9] 낙양–서안 지역의 프로펠러형 재갈멈치

1. 진시황릉 2호 병마용갱(傳天仇 主編 1988, 사진 24), 2, 3. 서안 남교 서한벽화묘 1호(2)와 2호(3)(西安市文物保護考古所 2006: 도 23-1, 도 77-2), 4. 서안 남교 서한묘(西安市文物保护考古研究院 2012: 도 56-2), 5. 낙양 서교 한묘(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洛陽發掘隊 1963: 도 24-9)

2) 서안 남교 서한벽화묘

섬서성 서안시(西安市) 남교(南郊) 서안이공대학(西安理工大學)에 위치한다. 2004년에 약 40기의 한나라 시기 무덤 중 1호와 2호 무덤을 발굴하였다(西安市文物保護考古所 2006). 전실벽화묘인 1호 무덤에서는 2쌍의 철제 및 2쌍의 청동제 재갈이 출토되었다. 그중 청동제 재갈 1쌍은 2공의 “판상 S자형”이다(도면 9-2). 이 유물의 재갈쇠는 길이 10cm, 재갈멈치는 길이 9.2cm이다. 2호 무덤도 전실묘이다. 2쌍의 청동제 재갈이 출토되었는데 1쌍이 “판상 S자형”이다(도면 9-3). 재갈쇠는 길이 4.4cm로 보고 되었으나 아마도 절 하나의 길이일 것이다. 재갈멈치는 길이 7.6cm이다. 1호와 2호 무덤 모두 서한 만기로 편년되었다.

3) 서안 남교 서한묘

섬서성 서안시(西安市) 남교(南郊)에 위치한다. 2004년에 한나라 시기 무덤 3기와 원나라 시기 무덤 1기가 조사되었다(西安市文物保護考古研究院 2012). 1호 무덤에서는 투조 날개 장식 청동제 재갈 1쌍이, 3호 무덤에서는 “판상 S자형 재갈”이 1쌍 출토되었다. 전권동실묘(磚券洞室墓)인 3호 무덤 출토 재갈은 재갈쇠 길이 7.5cm, 재갈멈치 길이 7cm이다(도면 9-4). 3호 무덤은 서한 만기~왕망 시기로 편년되었다.

4) 낙양 서교 한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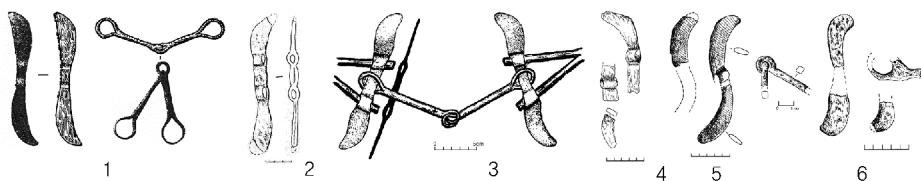
하남성 낙양시(洛陽市) 서교(西郊)에 위치한다. 1957~1958년에 약 400기의 무덤을 정리 조사하였다(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洛陽發掘隊 1963). 그중 217기는 서한 중엽~동한 만기의 전축묘이다. 한나라 시기 무덤에서 모두 4쌍의 “판상 S자형 재갈”이 출토되었는데 그중 3142호 무덤 출토품이 그림으로 소개되었다(도면 9-5). 청동제이며, 재갈쇠와 재갈멈치 모두 길이가 각각 10.3cm이다. 명기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7. 바이칼호 남쪽 지역(셀렝게강 하류 지역)

1) 이헤리고 고분군

우스찌-꺄흐따에서 북서쪽 약 28km, 데레스뚜이 라마교 사원에서 약 4km 거리의 셀렝게강 지류인 지다강 북쪽에 위치한다. 이곳에는 모두 25기의 고분이 집계되었다(딸꼬-그린쩨비치 1999). 1898년에 딸꼬-그린쩨비치가 그중 15기를 발굴하였다. 그 중 8호 무덤에서 프로펠러형 철제 재갈멈치와 2연식 철제 재갈쇠가 출토되었다(도면 10-1). 8호 무덤은 $2 \times 1m$ 크기의 장방형이며, 깊이는 1m이다. 철제 재갈멈치는 길이 16.5cm이고, 2개의 구멍이 있다. 재갈쇠의 길이와 특징은 보고되지 않았다. 이 무덤에서는 약간의 인골편이 확인되었다.

이 재갈멈치와 재갈쇠는 모사도가 소개되어 있다(도면 10-1). 쿨레노바(1992: 248)에 의하면 이 유물은 G.P.소스놉스끼에 의해 판석묘 문화의 늦은 단계(기원전 3~기원전 2세기)로 편년된 바 있다.



[도면 10] 남바이칼 지역의 프로펠러형 재갈멈치

1. 이헤리고 고분군 8호(딸꼬-그린쩨비치 1999, 쿨레노바 1992: 도판 102-2 · 3), 2. 이볼가 성(다브이도바 1995: 도판 14), 3~6. 데레스뚜이 고분군 29호, 48호, 81호, 112호 무덤(꼬노발로프 1976, 미나예프 2007)

2) 이볼가 성

부랴트 공화국 올란-우데에서 남서쪽 16km 거리의 셀렝게강 좌안에 위치한다.

이불가 성은 평면 장방형이며, 크기는 남북 348m, 동서 194~216m이다. 전체 너비 35~38m에 걸쳐 4개의 성벽과 3개의 해자가 동쪽을 제외한 성의 나머지 부분을 두르고 있다.

이 유적은 1928~29년에 G.P.소스놉스끼가 처음 발굴을 시작하였으며, 당시 3기의 주거지를 발굴하였다. 이후 1949~1950년, 1955~1956년, 1958~1959년, 1961~1962년, 1974년에 7,000m²의 면적에서 51기의 주거지와 수 백기의 경제 구덩이 등이 발굴되었고, 다량의 유물이 출토되었다(다브이도바 1995).

흉노의 대표적인 유적 중 하나인 이곳에서는 다량의 동물 뼈와 토기, 골각기, 철제와 청동제 유물, 석제품, 목제품, 유리제품 등이 출토되었다. 철제품 중에는 프로펠러형 재갈멈치도 보고되었다. 문화층에서 출토된 이 재갈멈치는 가운데에 일정 거리를 두고 2개의 구멍이 있고, 양쪽 날개의 끝부분은 모두 결실되었다(도면 10-2). 축척은 제시되었지만 크기 등 구체적인 특징은 소개된 것이 없다. A.V.다브이도바는 이 유적을 기원전 2~기원전 1세기로 편년한 바 있다(다브이도바 1995: 58).

3) 데레스뚜이 고분군

셀렝게강의 지류인 지다강 좌안에, 데레스뚜이 마을에서 상류 쪽 약 8km 거리에 위치한다. 딸꼬-그린쩨비치가 1900년에 발견하였고, 그해 여름에 1일, 1901년에 2일 동안 모두 26기 무덤을 발굴하였다. 1968년과 1977년에는 꼬노발로프가 9기 무덤을 발굴하였으며, 1984~1996년에는 미냐예프가 다시 이 고분군에서 95기의 무덤을 발굴하였다. 흉노의 토기, 동복, 화살촉, 활과 화살통 부속품, 마구, 각종 도구, 띠 부속품, 장신구, 오수전 등 다수의 유물이 출토되었으며, 기원전 1~기원후 1세기로 편년된다(미냐예프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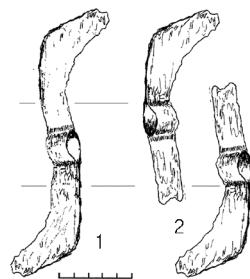
마구 중에는 철제 프로펠러형 재갈멈치도 출토되었다(꼬노발로프 1976: 50, 57, 90, 94, 99, 137, 도판 30-9~12, 도판 63-16~17, 도판 95-10~12, 도판 108-13), 29호 무덤(도면 10-3), 48호 쿠르간(도면 10-4), 81호 무덤(도면 10-5), 112호 무덤(도면 10-6), 120호 무덤에서 출토되었는데 29호 무덤 출토품을 제외하면 모두 편 상태이다. 그중 2점은 날개와 함께 구멍이 하나씩 남아있다. 그림에 축적이 제시된 것을 제외하면 유물의 크기는 따로 보고되지 않았다.

29호 무덤에서는 목관에 안치된 인골의 발 부분에서 다수의 철제 유물과 함께 철제 프로펠러형 재갈멈치와 2연식 재갈쇠가 출토되었다. 인골은 12~13세의 어린이로

추정되었다(꼬노발로프 1976: 138).

S.S.미냐예프는 이 고분군 출토 프로펠러형 재갈멈치와 관련하여 전체 모양이 확인되는 그림을 하나 제시하였는데(도면 11-1), 48호 쿠르간 출토품을 기초로 하는 추정 복원도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48호 쿠르간 출토품 그림과 1개의 구멍이 있는 추정 복원도를 자세히 비교해 보면 어색한 점이 많고, 과연 그 재갈멈치에 1개의 구멍만 있었는가에 대해 의구심이 생긴다. 필자 생각에 그 추정 복원도는 잘못된 것이다. 이불가 성(도면 10-2) 및 데레스뚜이 29호 무덤(도면 10-3) 출토 비슷한 모양 재갈멈치와 비교해 볼 때 원래는 2개의 구멍이 있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S.S.미냐예프가 제시한 프로펠러형 재갈멈치는 모두 철제이며, S자 모양이다. 길이는 약 20cm로 추정되었고, 가운데 부분 너비는 1.5cm, 단면은 장방형이며, 양쪽 날개는 끝부분이 넓어진다(미냐예프 2007: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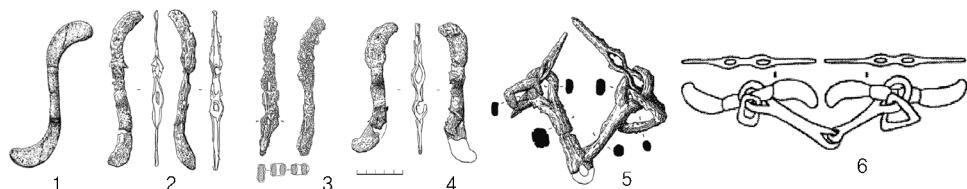


[도면 11] 데레스뚜이 고분군 재갈멈치 복원도(1)와 비교 자료(2) (미냐예프 2007)

8. 알타이지역

1) 올론 쿠린 골-10 고분군 1호 쿠르간²⁾

몽골 알타이 산악지역인 바양울기 아이막 올론-쿠린-골 강 좌안에 위치한다(볼로딘 외 2006). 3기의 적석 쿠르간이 북동-남서 방향으로 열을 이루고 있다. 직경 11m인 1호 쿠르간은 그중 규모가 가장 크다. 이 1호 쿠르간의 깊이 185cm인 무덤구



[도면 12] 알타이지역의 프로펠러형 재갈멈치

1. 올론 쿠린 골-10 고분군(볼로딘 외 2006), 2~6. 알로만-2 고분군(띠쉬낀 2011: fig 12, 마뜨레닌 2018: 그림 1-2~3., 띠쉬낀 외 2006: 그림 1-43)

2) 이 고분은 도면 캡션에는 올론 쿠린 골-6 고분군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내용상 올론 쿠린 골-10 고분군이 정확하다(필자).

덩이와 그 안에 안치한 목과 사이에서 고전적인 파지리크 문화 스타일로 장식한 마구가 착장된 2필의 말뼈가 발견되었다. 마구 중에는 철제 고리 재갈쇠, 나무로 만든 프로펠러형 재갈멈치(도면 12-1), 그리핀이 표현된 마구 장식품, 안장 부속품 등이 있다. 물론 쿠린 골-10 고분군 1호 쿠르간은 우코크 고원의 베르흐 깔쥔-2 고분과 매우 흡사한 것으로 평가되며, 기원전 6~기원전 3세기로 편년된다.

2) 얈로만-2 고분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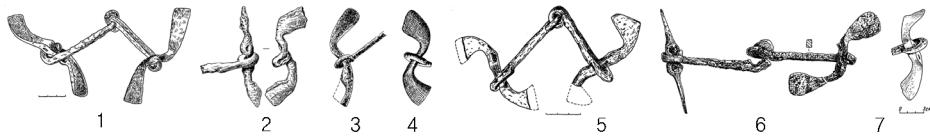
알타이 공화국 온구다이 지구 볼쇼이 얈로만 강이 카툰강과 합류하는 곳 부근에 위치한다. 출토 유물 중에서 철제 프로펠러형 재갈멈치도 확인된다. 2003년에 43호 쿠르간에서 다수의 금제 유물 및 철제 재갈쇠와 함께 2공식의 철제 재갈멈치가 출토되었다(띠쉬낀 2011: 539~558) (도면 12-3). 54호 쿠르간에서도 1쌍의 철제 프로펠러형 재갈멈치가 출토되었다(마뜨레닌 2018) (도면 12-2).

그 외에 46호 쿠르간에서는 철제 재갈이 1쌍 출토되었는데 재갈쇠 외환에 재갈멈치와 인수가 각각 연결되어 있다(마뜨레닌 2018) (도면 12-5). 이 재갈의 재갈멈치는 복원도(띠쉬낀 외 2006) (도면 12-6)를 통해 볼 때 고분 번호가 특정되지 않은 프로펠러형 재갈멈치(도면 12-4)와 동일한 것으로 생각된다. A.A.띠쉬낀 등은 이 쿠르간을 기원전 2세기~기원후 1세기의 흥노 시기에 상응하는 우스찌-에디간 단계로 파악한다(띠쉬낀 외 2006: 31, 마뜨레닌 2018).

9. 환흑해 북부 드네프르강 유역

1) 꿀레쇼브까 고분군

드네프르강 하류의 좌안 지류인 술라강 유역의 꿀레쇼브까 마을 가까이 위치한다. 10기 이상의 쿠르간이 분포하였는데 1898년에 N.E.브란덴부르가가 발굴하였다(일린스까야 1968; 갈라니나 1977). 청동기시대 425호 쿠르간의 봉분에 만든 스키타이 시대 덧무덤에서 철제 검, 청동제 화살촉 등과 함께 프로펠러형 재갈멈치가 부착된 철제 재갈이 1쌍 출토되었다(도면 13-1). 유물의 크기 등은 보고되지 않았으나, 대신 축척이 있다. 이 덧무덤 출토품은 V.A.일린스까야에 의해 기원전 5세기 전반으로 편년되었다.



[도면 13] 환흑해 북부 드네프르강 유역의 프로펠러형 재갈멈치

1. 폴레쇼브까 고분군(일린스까야 1968: 도판 47-5), 2. 브로바르끼 고분군(갈라니나 1977: 도판 28-5), 3, 4. 볼콥초이 고분군(일린스까야 1968: 도판 32-9, 도판 35-11), 5. 뾰뽀브까 고분군(일린스까야 1968: 도판 53-4), 6. 빠레세뻬노 고분군(마호르뜨이흐 2012: 그림 3-10), 7. 스멜라 고분군(뻬뜨렌꼬 1967: 도판 26-12)

2) 브로바르끼 고분군

드네프르강 하류의 좌안 지류인 프솔강 우안에 있는 브로바르끼 마을 부근에 위치한다. 1902년에 N.E.브란덴부르가가 발굴하였다(갈라니나 1977: 50). 프로펠러형 재갈멈치가 발견된 쿠르간은 높이 3.55m, 둘레 길이 100보였다. 무덤은 도굴되었으나, 인골과 함께 철제 창, 재갈, 청동제 장식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재갈에는 프로펠러형 재갈멈치 하나와 재갈쇠 일부가 남아있었다(도면 13-2). 이 쿠르간은 기원전 5세기 전반으로 편년되었다.

3) 볼콥초이 고분군

드네프르강의 좌안 지류인 술라강 상류 롬니시(市) 북동쪽 가까이에 위치한다. 104기의 쿠르간이 분포하고 있으며, 높이 10m 이상, 직경 60m의 대형 쿠르간도 있다(일린스까야 1968: 10, 16, 44~45, 47). 그중 1호와 8호 쿠르간에서 철제 프로펠러형 재갈멈치가 출토되었다. S.A.마자라카가 1886년에 발굴한 1호 쿠르간은 봉분 높이 3.5m의 대형에 속한다. 부장품 중에는 철제 프로펠러형 재갈멈치와 재갈쇠, 골제 재갈멈치도 있다(도면 13-3). 1886년에 발굴된 8호 쿠르간은 봉분 높이 2.1m이며, 부장품 중에는 철제 재갈쇠와 결합한 청동제 프로펠러형 재갈멈치도 있다(도면 13-4).

4) 뾰뽀브까 고분군

드네프르강의 좌안 지류인 술라강 상류 롬니시(市) 남서쪽 가까이에 위치한다. S.A.마자라카가 발굴하였다(일린스까야 1968: 60). 42기의 쿠르간이 분포하고 있으며, 그중 봉분 높이 1.4m인 14호 쿠르간에서 철제 재갈멈치와 재갈쇠가 출토되었다(도면 13-5).

5) 빠레셰빠노 고분군 24호 쿠르간

드네프르강 좌안 지류인 보르스클라강 유역의 벨스크 성 부근에 위치한다. 약 130 기의 쿠르간이 있으며 40기 이상 조사되었다(마호르뜨이흐 2012). 그중 24호 쿠르간 1호 무덤에서 양단이 납작하고 넓어지는 S자 모양 철제 재갈멈치가 2연식의 철제 재갈쇠와 함께 출토되었다(도면 13-6). 고분군은 기원전 7세기~기원전 4세기 전반으로 편년되며, 철제 재갈멈치가 발견된 24호 쿠르간 1호 무덤은 기원전 5세기 전반으로 편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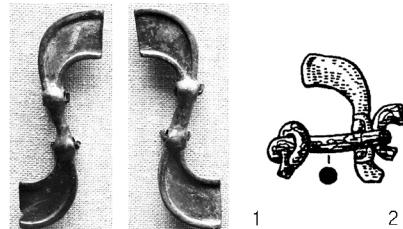
6) 스멜라 고분군 522호 쿠르간

드네프르강 중류 지역 체르카시 남서쪽 스멜라 마을 부근에 위치한다. 출토 유물 중에는 프로펠러형 청동제 재갈멈치도 1점 확인된다(도면 13-7). 기원전 5세기 초로 편년된다(뻬뜨렌꼬 1967: 37).

10. 돈강 중류-볼가강 하류 지역

1) 호세우또보 고분군

볼가강이 카스피해와 합류하는 곳 가까이
볼가강 좌안 호세우또보 마을 부근에 위치한
다. 모스크바 역사박물관에 1쌍의 청동제 프
로펠러형 재갈멈치가 전시되어 있는데 스키
타이 시대 사브로마트 문화에 속하며 기원전
6~기원전 5세기로 편년된다(도면 14-1).³⁾



[도면 14] 돈강 중류-볼가강 하류 지역의 프로펠러형
재갈멈치 : 1. 호세우또보 고분군(모스크바
역사박물관, 필자 촬영), 2. 유타예브까
고분군(모쉬꼬바 1989: 도판 81-2)

2) 유타예브까 고분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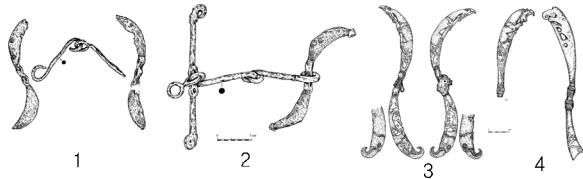
돈강이 남동 방향으로 흐르다가 남서 방향으로 방향을 바꾸는 곳 가까이 일로브
라강 하류 우안 지역에 위치한다. 중기 사르마트 문화(기원전 2세기 말~기원후 2세
기 초)에 속하는 한 쿠르간에서 철제 프로펠러형 재갈멈치가 1점 출토되었다(모쉬꼬
바 1989: 177, 185) (도면 14-2).

3) 2018년 2월에 모스크바 역사박물관에 전시된 것을 실견하였다.

11. 북코카서스 쿠반강 유역

1) 울스끼 고분군

코카서스산맥 북서쪽 아드게이 공화국 울랴프 마을 남동 가장자리 부분에 위치 한다. 유적이 있는 곳은 쿠반강의 지류인 라바강 좌안 들판이다. N.I. 베셀롭스끼가 자



[도면 15] 울스끼 쿠르간 출토 프로펠러형 재갈멈치(이반치크 외 2015)

1. 철제, 3. 은제, 4. 청동제

신이 확인한 동서 방향으로 배치된 10기의 쿠르간 중 1898년에 2기, 1908년에 3기, 1909년에 4기 등 모두 9기의 쿠르간을 발굴하였다. 이후 A.M. 레스꼬프를 단장으로 하는 동양예술국립박물관 조사단이 1982년에 베셀롭스끼가 발굴하지 않은 나머지 1기(10호) 쿠르간을 발굴하였고, 그 외에 1983년에 도로 확장 공사 중에 확인된 11호 쿠르간의 북쪽 일부를 조사하였다(이반치크 외 2015). 2007년에는 베셀롭스끼가 발굴한 1898-1호 쿠르간과 1908-1호 쿠르간에 대한 재조사가 이루어졌다. 유적의 연대는 기원전 6~기원전 5세기로 편년된다.

이 유적에서는 사슴, 표범, 그리핀 등의 스키타이 동물 양식 장식품과 함께 다수의 마구가 출토되었는데 그중에는 프로펠러형 재갈멈치도 있다. 프로펠러형 재갈멈치는 1898-2호 쿠르간, 1909-2호 쿠르간, 1982-10호 쿠르간에서 출토되었다.

재갈멈치는 철제, 청동제, 은제가 있으며, 모두 가운데에 2개의 구멍이 있다. 철제는 세부 형식이 날개의 단면이 납작한 것과 원형인 것으로 구분되는데, 납작 날개를 가진 것은 끝이 뾰족한 것과 “혹”이 있는 것으로 세분된다. 납작 날개이면서 끝이 뾰족한 재갈멈치는 1982-10호 쿠르간 1호 말(馬)에서 출토된 것이 보존 상태가 가장 양호하다(도면 15-1). 이 재갈멈치는 잔존 길이가 16.5cm이며, 쌍으로 발견된 다른 재갈멈치는 잔존 길이가 17cm이다. 날개가 납작하면서 양쪽 끝에 “혹”이 있는 재갈멈치는 1982-10호 쿠르간 22호 말에서 발견된 것이 전체가 온전하게 남아있는데 길이가 19cm이다(도면 15-2). 이 재갈멈치와 쌍을 이루는 재갈멈치는 곧은 막대기 모양이고 양쪽 끝이 양식화된 새의 머리 형상이다. 길이는 22cm이다. 이 재갈멈치 쪽 재갈쇠 고리에 비튼 8자 모양 고삐이음쇠가 부착되어 있다. 그 외에도 편 상태의 철제 프로펠러형 재갈멈치가 다수 출토되었다.

청동제와 은제는 각각 한 쌍이 1909-2호 쿠르간에서 출토되었다. 은제 재갈멈치 한 쌍은 길이가 22cm이고, 양쪽 날개가 모두 주조, 투조, 선각에 의한 동물 형상들로 장식되어 있다(도면 15-3). 두 구멍 사이의 공간에는 철제 재갈쇠의 흔적이 있다. 청동제 한 쌍은 하나는 한쪽 날개 부분만 남아있고(길이 12.1cm), 다른 하나는 한쪽 날개의 끝부분이 결실되었다(길이 22cm) (도면 15-4). 청동제 역시 날개가 동물의 형상들로 장식되었다. 가운데 2개의 구멍 바깥쪽이 세로와 가로 방향의 돌선으로 장식된 점이 주목된다.

III. 프로펠러형 재갈멈치의 형태적 특징과 기원 문제

1. 형태적 특징과 분류

프로펠러형 재갈멈치는 아직 그 자체로서 연구 대상이 된 적이 없어 형태적 특징이나 기타 사항에 대한 속성 구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다만 허미연은 프로펠러형 재갈멈치의 양쪽 끝부분을 서로 연결하는 선이 표신의 중앙인지, 중앙에서 조금 벗어나 한쪽 구멍 부분인지, 혹은 구멍보다 더 바깥인지를 기준으로 표신 양단의 대칭성을 중앙, 편향, 외곽으로 구분한 바 있다. 허미연은 이를 기준으로 한반도 동남부지역 프로펠러형 재갈멈치는 이른 시기의 것은 표신의 양단이 서로 대칭적으로 만곡하고, 시기가 늦어질수록 점차 대칭성을 잃어가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또 연하도 출토 프로펠러형 재갈멈치도 영남지역 프로펠러형 표비 중 이른 시기의 예와 동일하게 표신이 대칭적임을 지적하였다. 그 외에도 허미연은 연하도 출토 프로펠러형 재갈멈치 표신의 양단이 직선적인 형태로서 평양 상리, 성주 예산리 Ⅲ-1호, 경주 화천리 5호 등의 출토품과 형태적으로 유사함을 지적하였다(허미연 2014: 47~48, 53, 62~63). 다시 말해서, 허미연은 프로펠러형 재갈멈치의 주요 속성으로 표신의 대칭성과 양단(익단)의 형태를 제시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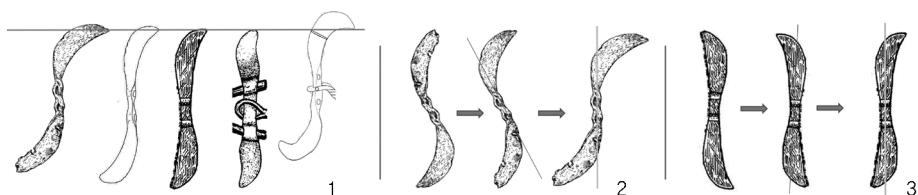
프로펠러형 재갈멈치 익단의 형태는 매우 중요한 속성으로 생각되나, 표신의 대칭성은 한반도에서는 시간적인 변화를 보여 줄 수 있을지도, 유라시아대륙 전체에 적용하기에는 힘들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기원전 5세기 전반으로 편년되는 드네프르강 유역의 볼콥츠이 8호 쿠르간 출토 청동제 프로펠러형 재갈멈치는 대칭적이나(도면 13-4), 비슷한 시기로 편년되는 빼레세뻬노 24호 쿠르간 철제 프로펠러형 재갈멈치는 완전히 비대칭적이다(도면 13-6). 또한 기원전 6~기원전 5세기로 편년되는 울스키 쿠르간 출토 은제 프로펠러형 재갈멈치 1쌍은 하나는 대칭적이나 다른 하나는 완전 비대칭적이다(도면 15-3). 그 외에도 연하도 무양대촌 서쪽 수습 재갈 1쌍에 부착된 철제 프로펠러형 재갈멈치도 하나는 대칭적이나 다른 하나는 비대칭적이다(도면 7-1).

프로펠러형 재갈멈치는 가운데 2개의 구멍이 있는 공부(孔部) 혹은 중심부(中心部)와 날개 부분에 해당하는 익부(翼部)가 구분된다. 날개의 끝부분, 즉 익단(翼端)은 선(線)을 이루면서 마무리되는 것과 익단의 경계가 모호하면서 뾰족하게 점(點)을 이루면서 마무리되는 것이 구분된다. 여기에서 전자는 선익단(線翼端), 후자는 점익단(點翼端)으로 부르고자 한다. 익단의 형태에 대해서는 허미연이 예산리 출토품과 연하도 무양대촌 서쪽 수습 재갈멈치 하나의 끝부분을 “직선적인 형태”로 파악하였듯이 이미 학계에서 주목한 적이 있다. 중심부 두 구멍 간의 간격도 의미 있는 속성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고된 것이 드물어 검토가 힘들다.

따라서 필자는 프로펠러형 재갈멈치를 익부 및 익단의 형태를 고려하여 분류해 보았다. 먼저 익단이 뾰족한 점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A 그룹, 선을 이루면서 마무리되는 것을 B 그룹으로 크게 구분하였다. 다음에 A 그룹은 익부의 형태와 점익단의 위치(도면 16-1) 등을 고려하여 7개 형식으로 세분하였다. B 그룹은 익단의 선이 둥그스름하게 마무리되는 곡선익단(曲線翼端)의 B-1 그룹과 익단의 선이 직선 혹은 거의 직선인 직선익단(直線翼端)의 B-2 그룹으로 구분하였고, 다음에는 익부의 형태와 방향 등을 고려하여 각각 9개 및 5개 형식으로 세분하였다(도면 17).

프로펠러형 재갈멈치의 형태적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먼저 그림이나 사진에서 두 구멍이 있는 중심부를 수직으로 세우고, 익부의 굽은 방향을 모두 오른쪽으로 향하게



[도면 16] 점익단 위치 예시(1), 그림 회전의 예(2), 그림 회전과 “가로 뒤집기”의 예(3)(필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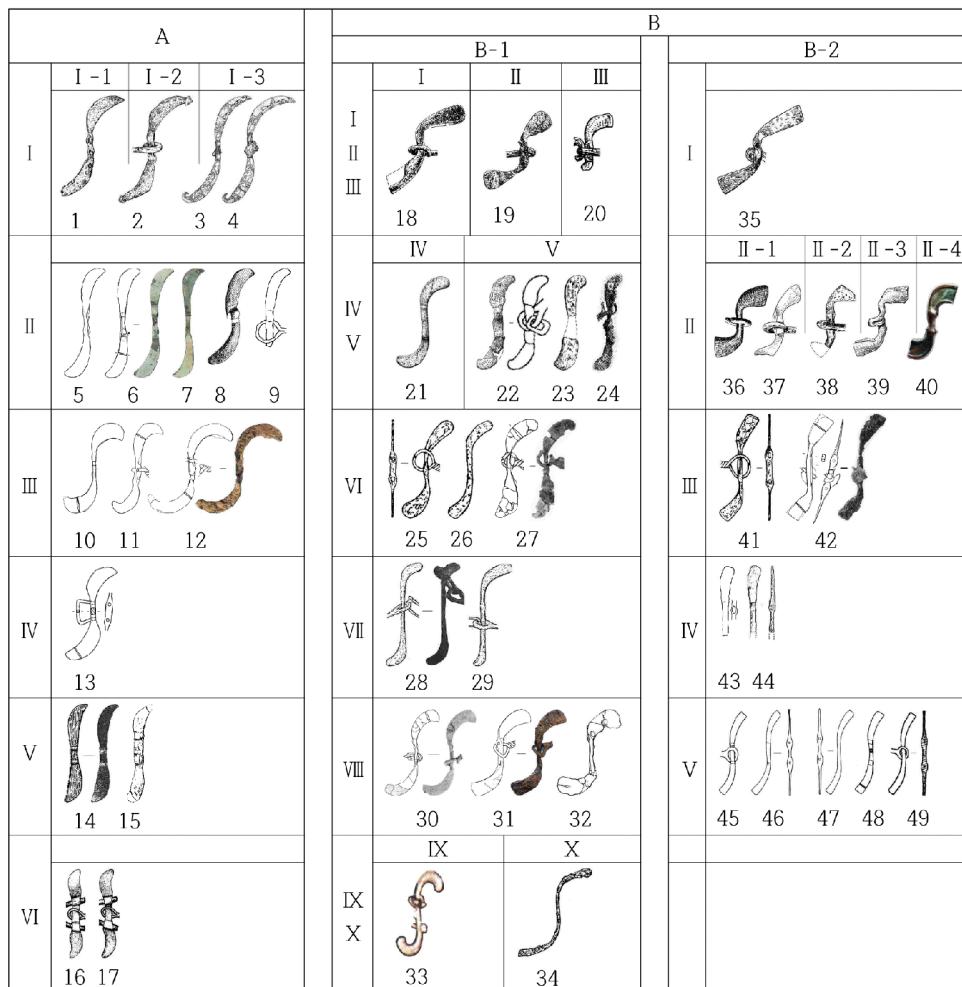
하였다. 이때 필요한 경우에는 실측 그림 자체를 180도까지 회전하거나 혹은 “가로로 뒤집기”한 것도 있다(도면 16-2~3).

A 그룹

- I 형식 – 익부의 외곽이 크게 호선을 그리면서 낫의 모양을 갖는다(도면 17-1~4). 익단이 모두 뾰족하나 세부 형식이 구분되는데 I -1형식은 익단의 뾰족한 것이 일반적인 점익단이고(도면 17-1), I -2형식은 점익단에 꼭지가 있으며(도면 17-2), I -3형식은 익부에 동물의 형상을 새기 있고, 익단이 새의 부리 모양이다(도면 17-3~4).
- II 형식 – 익부의 굽은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며 나이프 모양이다(도면 17-5~9). 점익단이 모두 익부 최대 높이보다 아래에 위치한다.
- III 형식 – 익부의 굽은 정도가 강하여 점익단에서 수평선을 그을 때 익부 안쪽에 작은 공간이 생긴다(도면 17-10~12). 익부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짧은 것과 긴 것이 확인된다.
- IV 형식 – 익부의 굽은 정도와 낫 모양은 I -1형식과 비슷하나, 중심부와 익부의 연결 지점 바깥쪽에 ‘턱’이 진 것이 차이가 난다(도면 17-13).
- V 형식 – 뾰족한 점익단이 익부의 최대 높이 부분에 위치하며, 익부가 나이프 모양이다(도면 17-14~15).
- VI 형식 – 뾰족한 점익단이 익부의 최대 높이 부분에 위치하며, 익부가 게의 집게 발 모양이다(도면 17-16~17).

B-1 그룹

- I 형식 – 익부가 중심부와의 관계에서 거의 직각을 이루며, 익부가 상대적으로 길고 둥근 익단이 있는 바깥으로 가면서 넓어진다(도면 17-18).
- II 형식 – 익부의 안쪽이 중심부와의 관계에서 거의 직각을 이루며, 익부가 상대적으로 짧고 바깥으로 가면서 넓어진다(도면 17-19).
- III 형식 – 익부가 중심부와의 관계에서 거의 직각을 이루며, 익부의 양측 가장자리가 거의 평행을 이루면서 미약하게 넓어진다(도면 17-20).
- IV 형식 – 익부가 상대적으로 길면서 부드럽게 굽었고 익단은 둥그스름하게 마무리되며 무게 중심이 안쪽에 있다(도면 17-21).



[도면 17] 프로펠러형 재갈멈지 형식 분류표(필자 작성)

1~4. 울스카, 5~7, 12. 대구 평리동, 8, 16, 17, 23. 대레스뚜이, 9, 43, 44. 서차구, 10, 11, 19. 창원 다호리, 13. 충주 금릉동, 14. 이혜리고, 15. 이불가성, 18, 36. 볼콥츠이, 19. 빠레세뻬노, 20. 유타예브까, 21. 올론-쿠린-골-10, 22. 알로만-2, 24. 평양 석암리, 25, 26, 34, 41. 연하도, 28, 29. 유수 노하심, 30, 31. 경산 임당동, 32. 대동군 상리, 33. 진시황릉 2호 병마용갱, 35. 꿀례소브까, 37. 스멜라, 38. 뽀뽀브까, 39. 브로바르끼, 40. 호세우또보, 42. 성주 예산리, 45. 납림투해, 46, 47. 소만, 48. 팔배, 49. 상손기채(각 재갈멈치 출토 유적의 출처는 유적 소개 부분에 모두 제시되었기에 여기에서는 생략함. B-2 그룹 V형식 재갈멈치는 형태와 크기가 모두 천편일률적이어서 일부 유적 출토품만 예시함. 일부 재갈멈치는 180도까지 회전 혹은 가로 뒤집기 함.)

V형식 – 익부가 상대적으로 짧으면서 부드럽게 굽었다. 익단의 무게 중심이 안쪽에 있다(도면 17-22~24).

VI형식 – 익부가 중심부와의 관계에서 둔각을 이루며, 익단의 무게 중심이 가운데에 있다(도면 17-25~27).

VII형식 – 익부가 중심부와의 관계에서 둔각을 이루는 것은 VI형식과 비슷하

나, 익부가 중심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고 또 폭이 좁다(도면 17-28~29).

VIII형식 – 익부가 바깥으로 가면서 넓어지고 익단은 미약하게 호선을 그리다가 안쪽에서 약간 뾰족하게 점을 이루면서 마무리된다(도면 17-30~32). 익단의 무게 중심이 안쪽에 있다.

IX형식 – 익부가 알파벳 C자 모양에 근접하게 크게 굽었다(도면 17-33).

X형식 – 중심부와 익부의 폭이 매우 좁아 전체적으로 가늘다(도면 17-34).

B-2 그룹

I 형식 – 익부가 중심부와의 관계에서 거의 직각을 이루고 또 상대적으로 긴 것은 B-2 그룹 I 형식과 비슷하나 익단이 곧은 것이 서로 다르다(도면 17-35).

II 형식 – 익부가 중심부와의 관계에서 거의 직각을 이루며, 익부가 상대적으로 짧고 바깥으로 가면서 넓어진다(도면 17-36~40). II -1형식은 익부가 익단으로 가면서 크게 넓어졌고(도면 17-36~37), II -2형식은 익부가 삼각형 모양이며(도면 17-38), II -3형식은 익부의 위와 아래가 거의 평행을 이루면서 미약하게 넓어졌다(도면 17-39). II -4형식은 익부 양쪽 가장자리에 주연이 있다(도면 17-40).

III형식 – 익부가 바깥으로 가면서 아주 미약하게 넓어지는 도끼날 모양이다(도면 17-41~42).

IV형식 – 익부의 굽은 정도가 미약하여 중심부와 익단의 바깥쪽 모서리 부분이 거의 동일 축 선상에 위치한다(도면 17-43~44).

V형식 – 익부가 좁은 끝날 모양이다(도면 17-45~49). 대부분 길이 10cm 내외의 미니어처이며, 명기(明器)로 보고되었다.

2. 지역적 특징과 기원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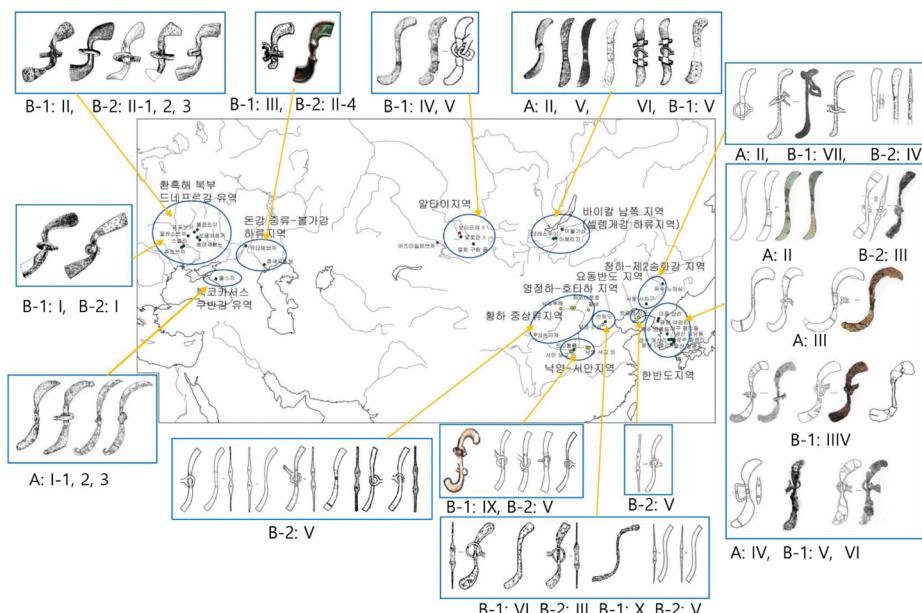
프로펠러형 재갈멈치는 지역적 특징이 상당히 강한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북코카서스 지역의 울스키 고분군에서는 A 그룹 I 형식 재갈멈치들만, 돈강 중류-볼 가강 하류 지역 및 환흑해 북부 드네프르강 유역에서는 B-1 그룹 I 형식과 II 형식

및 Ⅲ형식 그리고 B-2 그룹 I 형식과 Ⅱ형식 재갈멈치들만 출토되었다(도면 18).

알타이지역에는 B-1 그룹 IV형식과 V형식 재갈멈치들이, 남바이칼 셀렝게강 하류 지역에서는 A 그룹 Ⅱ형식, V형식, VI형식, B-1 그룹 V형식 재갈멈치가 각각 출토되었다. 청하-제2송화강 지역의 서풍 서차구 유적과 유수 노하십 유적 출토 재갈멈치는 A 그룹 Ⅱ형식과 B-2 그룹 IV형식 및 B-1 그룹 VII형식이 확인된다. B-2 그룹 V형식 재갈멈치는 중국지역 한나라 시기 유적에서만 예외적으로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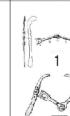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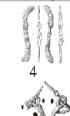
이에 반해 한반도 지역은 A 그룹 Ⅱ형식, Ⅲ형식, Ⅳ형식, B-1 그룹 V형식, VI형식, VII형식, B-2 그룹 Ⅲ형식 등 상당히 다양한 종류의 프로펠러형 재갈멈치가 확인된다(도면 18). 그중 창원 다호리 104호 및 119호 무덤 출토(도면 17-10~11) 및 대구 평리동 출토(도면 17-12) A 그룹 Ⅲ형식 프로펠러형 재갈멈치는 유라시아의 다른 지역에 아직 동일 형태가 발견된 적이 없다. 임당 145호 무덤과 창원 다호리 69호 무덤 및 평양 부근 상리 출토 B-1 그룹 VII형식 프로펠러형 재갈멈치(도면 17-30~32)도 동일 형식이 다른 지역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도면 18). 따라서 이 재갈멈치들은 한반도 동남부 지역에 특징적인 형태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는 달리 평양 석암리 출토 B-1 그룹 V형식 재갈멈치(도면 17-24)는 동일



[도면 18] 유라시아대륙 프로펠러형 재갈멈치 분포 현황도(필자 작성)

형식이 알타이지역 얄로만-2 유적(도면 17-22)과 셀렝게강 하류 지역 데레스뚜이 고분군(도면 17-23)에서 출토되었다. 대구 평리동 출토 A 그룹 Ⅱ 형식 프로펠러형 재갈멈치(도면 17-5~7)는 동일 형식이 셀렝게강 하류의 데레스뚜이 고분군(도면 17-8)과 서풍 서차구 고분군(도면 17-9)에서 출토되었다. 임당 96호 무덤에서 출토

	BC 8/7-6	BC 6 말	BC 5	BC 4	BC 3	BC 2	BC 1	AD 1	AD 2		
알타이 및 인접지역	 1  2	 3				 4  5  6-1  6-2  6-3					
쿠반강		 7  8	 9  10								
드네프 르강			 11  12  13  14  15  16  17								
돈강 - 볼가강			 18				 19				
나이칼						 20  21  22  23  24  25					
영정하 - 호타하				 26  27  28  29  30							
낙양 - 서안				 31		 32  33  34  35					
황하 중상류						 36  37  38  39  40  41  42					
요동변도						 43					
성하 - 제2 송 화강						 44  45  46  47  48  49					
한반도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도면 19] 유라시아대륙 발견 프로펠러형 재갈멈치 및 기원 관련 재갈멈치 편년표(필자 작성)

(각 재갈멈치 출토 유적의 출처는 유적 소개 부분에 모두 제시되었기에 여기에서는 생략함).

된 B-1 그룹 VI형식 프로펠러형 재갈멈치(도면 17-27)는 익부와 익단의 형태가 연하도 출토품(도면 17-25)과 비슷하다. 예산리 출토 B-2 그룹 Ⅲ형식 프로펠러형 재갈멈치(도면 17-42)는 연하도 무양대춘 수습 재갈멈치(도면 17-41)와 동일 형식이며, 그 외 다른 지역에서는 비슷한 것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한반도 출토 프로펠러형 재갈멈치와 동일 형식이 발견된 곳은 알타이지역 얄로만-2 고분군, 남바이칼 셀렝게강 하류 지역 데레스뚜이 고분군, 청하-제2송화강 지역 서풍 서차구 고분군, 영정하-호타하 사이 지역의 연하도 유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사실은 한반도 프로펠러형 재갈멈치의 기원을 이 지역들에서 찾아야 함을 말해 줄 것이다.

이 의견은 각 지역 프로펠러형 재갈멈치의 연대 문제와 관련해 보았을 때도 모순되지 않는다(도면 19). 한반도의 평양 석암리 유적과 평양 부근 상리 유적이 기원전 2세기 말 혹은 기원전 1세기 이른 시기로 편년되고, 남동부 지역의 프로펠러형 재갈멈치들은 기원전 1세기~기원후 1세기로 편년된다. 서차구 고분군은 기원전 2세기~기원전 1세기, 연하도 유적은 기원전 4세기~기원전 3세기, 얄로만-2 고분군 프로펠러형 재갈멈치 출토 고분과 데레스뚜이 고분군은 기원전 2~기원후 1세기로 각각 편년된다.

한반도 프로펠러형 재갈멈치의 기원과 관련하여 일찍이 알타이지역을 지목한 연구자가 있다. 김두철은 “스키타이계” 재갈멈치는 3공식이고, “알타이계”는 2공식임을 지적하면서 2공식인 한반도 프로펠러형 재갈멈치는 알타이지역에서 기원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였다(김두철 2000: 179~182). 한반도의 프로펠러형 재갈멈치가 알타이지역에서 기원하였다는 의견은 탁견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근거는 최신의 자료를 통해 볼 때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환흑해 북부지역 스키타이 문화에서는 기원전 7세기 말~6세기에 3공 혹은 3고리 표비가 널리 유행하였지만, 기원전 5세기 초에 이미 가운데가 8자 모양으로 넓은 2공 표비가 3공 및 3고리 표비를 대체하였고, 스키타이 시대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해서 사용되었다(멜유꼬바 1989: 96). 알타이지역에서 마이에미르 단계에는 3공식의 재갈멈치가, 파지리크 문화 단계에는 2공식의 재갈멈치가 기본적으로 사용되었다(술가 2008: 64~68). 이 사실은 3공과 2공은 시간적인 차이를 보여 주는 것이지 지역적인 차이를 보여 주는 것이 아님을 말해준다.

재갈멈치의 구멍 개수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강나리도 지적한 바 있다. 다만 강나

리가 “조기 스키토-시베리아문화 시기에는 3공의 표비가 동부스텝 지역의 여러 문화에서도 사용되었지만, 그것이 오랜 전통으로 지속되지 못하고 어느 순간 서쪽으로 이동하였음을 의미한다”고 하였는데(강나리 2022: 115), 이 문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가 인용하고 있는 아르잔 1호 쿠르간 출토 3공의 재갈멈치와 유사한 재갈멈치가 아르잔 1호와 비슷한 시기에 흑해 북안에서도 이미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이다(그라즈노프 1980: 55).

다음에는 프로펠러형 재갈멈치 자체의 기원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이론 시기의 프로펠러형 재갈멈치는 북코카서스 울스키 고분군에서 출토되었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사실 북코카서스 쿠반강 유역 울스키 1909-2호 쿠르간에서 출토된 기원전 6세기로 편년되는 A 그룹 I-3형식 은제 프로펠러형 재갈멈치(도면 17-3~4)는 다른 것들과는 달리 익부가 동물로 장식되어 있다. 하지만 날개 부분이 납작하고 중간 부분으로 가면서 넓어져 프로펠러형 재갈멈치인 것만큼은 분명하다. 울스키 고분군 1982-10호 쿠르간과 1898-2호 쿠르간 출토 I-2형식(도면 17-2) 및 I-1형식(도면 17-1) 철제 프로펠러형 재갈멈치는 기원전 5세기 혹은 기원전 5세기 중엽으로 편년된다(이반치크 외 2015: 96~99). 환흑해 북부 드네프르강 유역에서 출토된 철제와 청동제 재갈멈치(도면 17-18~19, 35~39)는 모두 기원전 5세기 전반으로 편년되고 있다.

이 사실은 프로펠러형 재갈멈치가 환흑해 북부지역에서 일찍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음을 말해 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프로펠러형 재갈멈치가 이 지역에서 기원하였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알타이지역에는 파지리크 문화 단계에 해당하는 올론 쿠린 골-10 고분군에서 나무로 만든 프로펠러형 재갈멈치가 출토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알타이지역의 흥노-선비-유연 단계 재갈멈치를 연구한 S.S.마뜨레닌은 알타이지역 철제 프로펠러형 재갈멈치의 원형이 몽골 알타이에서 조사된 파지리크 문화 올론 쿠린 골-10 고분군 1호 쿠르간 출토 목제 프로펠러형 재갈멈치(도면 17-21)에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마뜨레닌 2018: 1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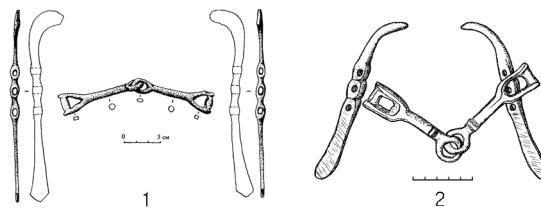
파지리크 문화는 기원전 6~기원전 3세기로 폭넓게 편년되기 때문에 이 목제 재갈멈치의 연대는 북코카서스 지역 및 환흑해 북부 드네프르강 유역 출토품보다 늦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주목되는 것은 알타이지역의 보이또이켐-2 고분군 및 이웃하는 이르티시강 유역에서 프로펠러형 재갈멈치의 시원적인 형태가 확인되었다는 사실

이다. 보이뜨이켐-2 고분군 2호 쿠르간 출토 청동제 재갈멈치는 가운데 중심부에는 3개의 구멍이 배치되어 있어 지금까지 살펴 본 2개 구멍의 프로펠러형 재갈 멈치와는 다르면서 또 시기가 더 이른 형식임을 보여 주고 있다.

이 재갈멈치의 양쪽 일부는 모두 넓고 평평하여 프로펠러형 재갈멈치의 특징과 일치한다(도면 20-1). 다만 한쪽은 “C”자 모양으로 굽었지만 다른 한쪽은 거의 곧거나 혹은 미약하게 굽어 프로펠러형 재갈멈치에 특징적인 온전한 “S”형을 가지지는 못한다. 하지만 아래가 미약하게 굽은 오른쪽 재갈멈치는 S자형을 연상시키기에 충분하다. 이 재갈멈치는 기원전 8~7세기(아브둘가네예프 1994: 37~43) 혹은 기원전 7세기 말~기원전 6세기 초(술가 2008: 62, 66, 67)로 편년된다.

프로펠러형 재갈멈치의 다른 한 시원적인 형태는 보이뜨이켐-2 고분군과 그렇게 멀지 않는 이르티시강 유역의 이즈마일로브까 고분군 17호 위석에서 발견되었다. 이 청동제 재갈멈치도 중심부에 3개의 구멍이 있다. 다만 한쪽 익부는 단면이 원형이고, 다른 한쪽 익부는 넓고 평평한 것이 프로펠러형 재갈멈치와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도면 20-2). 하지만 단면 원형인 익부는 “C”자 모양으로 굽어졌고, 넓고 평평한 익부는 미약하게 굽어져 어떻게 보면 프로펠러형 재갈멈치를 연상시키기도 한다. 이 고분군은 기원전 9~기원전 7세기로 편년된 적도 있지만(예르몰라예바 1987: 154~163), P.I.술가는 이 재갈멈치를 기원전 7세기 말~기원전 6세기 초로 편년하였다(술가 2008: 62, 66, 67).

이와 관련하여 P.I.술가는 이즈마일로브까 고분군 출토 재갈멈치의 날개가 조금 굽었고, 한쪽만 납작한 사실과 또 그 이전에는 그와 같은 재갈멈치가 없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 재갈멈치는 새로운 행태 재갈멈치의 시원적 형태일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즈마일로브까 고분군 출토품과 시기가 비슷한 보이뜨이켐-2 고분군 출토 S자 연상 재갈멈치는 다음 시기에 유행을 한 새로운 전통의 발생을 반영한다고 평가하였다(술가 2008: 68). 이 의견은 프로펠러형 재갈멈치의 기원에 관한 것으로 판단이 가능할 것이다. 필자는 P.I.술가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이즈마일로브까 고분군 17호 위석 출토품보다는 보이뜨이켐-2 고분군 출토품이 프로펠러형 재갈멈치



[도면 20] 알타이(1)와 이르티시강 유역 발견 청동제 재갈
1. 보이뜨이켐-2 고분군(아브둘가네예프 1994: 그림 1-1~2), 2.
이즈마일로브까 고분군(술가 2008: 그림 33-1)

의 시원적인 형태이자 새로운 전통의 발생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알타이지역의 마이에미르 문화 단계에 발생한 프로펠러형 재갈멈치는 올론 쿠린 골-10 고분군 출토품(도면 17-21, 도면 19-3)과 알로만-2 고분군 출토품(도면 17-22, 도면 19-4~6)의 예를 볼 때 그곳에서 마이에미르 문화 다음 단계인 파지리크 문화와 이후 흥노 시기까지 계속해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알타이지역은 가장 오랫동안 프로펠러형 재갈멈치가 사용되었던 곳이다.

알타이지역 프로펠러형 재갈멈치의 시원적인 형태는 모두 3공식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3공식 재갈멈치는 2공식 재갈멈치보다 먼저 유행한 형식이었다(멜유꼬바 1989: 96). 이 사실은 보이뜨이캠-2 고분군과 이즈마일로브까 고분군 3공 재갈멈치가 북카프카스 및 환흑해 북부지역의 프로펠러형 재갈멈치들보다 이른 형식임을 보여 준다. 따라서 알타이지역에서 발생한 프로펠러형 재갈멈치가 스키타이 시대에 서쪽으로 환흑해 북부지역까지 파급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알타이지역의 프로펠러형 재갈멈치는 파지리크 문화 단계와 시기가 어느 정도 상응하는 전국 시대에 중국 북방지역의 연하도까지 파급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흥노 시기의 프로펠러형 재갈멈치도 오랜 지역적 전통을 가진 알타이지역에서 셀렝제강 하류 지역, 서풍-유수 지역 등으로 파급되었다고 보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돈강 중류 지역 유타예브카 출토품(도면 17-20, 도면 19-19)은 기원전 2~기원후 2세기로 편년되는 후기 사르마트 시대에 속하는데 흥노 시대에 알타이지역에서 이곳까지 파급되었을 수도 있고, 혹은 이웃하는 기원전 5세기 드네프르강 유역의 프로펠러형 재갈멈치 전통이 계속해서 이어졌을 가능성도 있지만, 아직은 정확한 판단이 힘들다.

한 가지 더 지적해야 할 사항은 익단이 뾰족하게 마무리되는 점익단 프로펠러형 재갈멈치는 가장 이른 형식이 기원전 6~기원전 5세기 북카프카스 쿠반강 유역에서 확인되었고, 익단이 선으로 마무리되는 선익단 프로펠러형 재갈멈치는 기원전 5세기 환흑해 북부 드네프르강 유역은 물론이고 알타이에서도 함께 확인된다는 사실이다. 프로펠러형 재갈멈치의 시원적 형태로 볼 수 있는 기원전 8~기원전 7세기 혹은 기원전 7세기 말~기원전 6세기 초로 편년되는 보이뜨이캠-2 고분군 출토 3공 재걸멈치는 선익단을 가진다. 이는 어쩌면 점익단과 선익단의 프로펠러형 재갈멈치가 그 기원지가 달랐음을 말해 줄 수도 있고, 따라서 한반도의 프로펠러형 재갈멈치는 근원적으로 알타이지역뿐만 아니라 북코카서스 지역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다

만 북코카서스의 기원전 6~기원전 5세기 점익단 프로펠러형 재갈멈치와 남바이칼, 서차구 유적 및 한반도의 기원전 2~기원후 1세기의 점익단 프로펠러형 재갈멈치는 지나치게 먼 공간적 거리와 시간적 차이를 가지고 있어 둘 사이의 관련성을 말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유물을 더 필요로 할 것이다.

IV. 맷음말

지금까지 프로펠러형 재갈멈치를 유라시아대륙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한국에서 프로펠러형 재갈멈치의 기원 문제는 마구 사용의 시작과 관련하여 많은 주목을 받아 왔는데, 그것은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출현한 재갈멈치 중 하나가 바로 프로펠러형이기 때문이다.

프로펠러형 재갈멈치는 S자형 재갈멈치의 한 종류로서 2공의 중심부는 8자 모양을 이루면서 두텁고, 날개 부분은 납작하면서 그 중간 혹은 바깥의 폭이 넓어지며, 위와 아래 날개 부분이 전체적으로 S자 모양을 이루면서 굽었다. 이 특징을 가진 재갈멈치는 초기 철기시대인 스키타이 시대부터 시작하여 유라시아대륙의 여러 지역에서 사용되었다. 그 분포 범위는 한반도를 너머 청하-제2송화강 지역, 요동반도 지역, 영정하-호타하 사이 지역, 낙양-서안 지역, 황하 중상류 지역, 바이칼 남쪽 지역(셀렝게강 하류 지역), 알타이지역, 돈강 중류-볼가강 하류 지역, 북코카서스 쿠반강 유역, 그리고 환흑해 북부 드네프르강 유역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프로펠러형 재갈멈치는 기본적으로 2공이 있는 8자 모양 중심부와 날개 부분에 해당하는 익부(翼部)로 구성되어 있다. 익부의 끝부분에 해당하는 익단(翼端)은 뾰족하게 마무리되는 점익단(點翼端)과 선으로 마무리되는 선익단(線翼端)이 구분된다. 형식분류는 먼저 익단이 어떤 형태로 마무리되는지를 기준으로, 다시 말해서 점익단인지 혹은 선익단인지를 기준으로 크게 A 그룹과 B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B 그룹은 다시 익단의 선이 둥그스름한 곡선익단(曲線翼端)인 B-1 그룹과 익단의 선이 곧거나 혹은 거의 곧은 직선익단(直線翼端)인 B-2 그룹으로 나누었다. 다음에는 익부의 형태와 방향, 점익단의 경우 점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다시 세분하였다.

다음에는 프로펠러형 재갈멈치의 지역적 분포양상을 살펴보았는데 분명한 지역적 특징을 가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A그룹 I 형식, B-1 그룹 및 B-2 그룹 I 형식과

Ⅱ형식, 그리고 B-1 그룹 Ⅲ형식은 북코카서스, 드네프르강 유역, 돈강 종류-볼가강 하류 지역 등 서쪽 지역에서만 확인되었다. B-2 그룹 V형식은 중국지역 한나라 시기 유적에서만 발견된다. 한반도의 프로펠러형 재갈멈치는 A 그룹 Ⅱ형식, Ⅲ형식, IV형식, B-1 그룹 V형식, VI형식, VII형식, B-2 그룹 Ⅲ형식 등 상당히 다양한 종류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중 A 그룹 Ⅲ형식과 B-1 그룹 VII형식은 예외적으로 한반도에서만 발견되어 한반도에 특징적인 프로펠러형 재갈멈치임을 알 수 있다. 한반도의 것과 같은 형식의 프로펠러형 재갈멈치는 알타이의 얄로만-2 고분군, 바이칼 남쪽의 데레스뚜이 고분군, 청하-제2송화강 지역의 서차구 고분군, 영정하-호타하 사이 지역의 연하도 등에서만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프로펠러형 재갈멈치의 분포 범위와 편년을 고려하여 그 기원 문제를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말하여 프로펠러형 재갈멈치는 알타이의 보이뜨이겐-2 고분군 출토 S자 모양에 가까운 3공 재갈멈치에서 기원하며, 한반도 재갈멈치의 직접적인 기원은 공간적 및 시간적으로 서로 가까운 서풍 서차구 고분군과 깊은 관련이 있을 것이다. 다만 익단이 뾰족하게 마무리되는 점익단 프로펠러형 재갈멈치는 바이칼 남쪽, 서차구 유적, 한반도에서는 모두 기원전 2세기의 것들만 확인되는 것에 반해 북코카서스 쿠반강 유역에는 이미 기원전 6~기원전 5세기에 사용되어 그 근원적인 기원지는 북코카서스 지역일 수도 있다고 판단하였다.

투고일 2024. 4. 12 | 심사완료일 2024. 5. 21 | 게재확정일 2024. 5. 31

참고문헌

- 國文 -

- 강나리, 2022, 「흉노 표비의 성립과 주변」, 『고고광장』 31.
-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5, 『성주 백전 예산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문화유적발굴조사보고서』.
- 국립김해박물관, 2013, 『창원 다흐리유적 10차 발굴조사보고서』.
- 국립김해박물관·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4, 『창원 다흐리 유적 11차 발굴조사보고서』.
- 국립중앙박물관, 2012, 『창원 다흐리 1~7차 발굴조사 종합보고서』.
- 김두철, 2000, 『한국 고대 마구의 연구』, 동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노형신, 2018, 『원삼국~통일신라시대 재갈의 변천』, 『한국고고학보』 108.
- 백련행, 1965, 「석암리에서 나온 고조선 유물」, 『고고민속』 4.
- 신경철, 1994, 「가야 초기 마구에 대하여」, 『부대사학』 18.
- 영남문화재연구원, 2012, 『경주 화천리 산251-1유적 Ⅲ -원삼국~조선시대 분묘-』.
- 우리문화재연구원, 2012, 『울산 창평동 810번지 유적』, 울산광역시·우리문화재연구원.
- 윤무병, 1996, 『한국 청동기문화 연구』, 도서출판 예경.
- 윤서경, 2016, 『진·변한 재갈의 등장과 전개』,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용진, 1981, 「한국 청동기문화 연구 - 대구평리동 출토 일괄유물검토-」, 『한국고고학보』 10·11.
- 이상률, 2008, 「삼한시대 표비의 수용과 획기 -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상고사학보』 62.
- 이제혁, 2022, 『영남지역 4~6세기 고분 출토 재갈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은정, 2012, 「흉노계 표비(饗轡)의 확산과 고대 동아시아의 기마 문화 수용」, 『중앙아시아연구』 17-1.
- 정상석, 2012, 「〈유수 노하심〉보고서 재검토를 통한 묘역구분과 조성연대에 대한 일고찰」, 『고고학』 11-1호.
- 정한나, 2018, 『고베고리가 부가된 재갈의 기능 연구』,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충북대학교박물관, 2007, 『충주 금릉동 유적』.
- 한국문화재보호재단, 1998, 『경산 임당유적(I) A~B지구 고분군』, 한국토지공사·한국문화재보호재단.
- 허미연, 2014, 「삼한시대 영남지역 철제표비의 연구」, 『한국고고학보』 91.
- 횡다운, 2019, 「중서부지역 마한·백제 재갈의 전개양상」, 『고고학』 18-2.

- 中文 -

-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編, 1987, 『榆樹老河深』, 文物出版社.
-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2013, 『姜屯漢墓』(上·下), 文物出版社.
- 遼寧省博物館·遼寧省文物考古研究院·吉林大學邊疆考古研究中心編著, 2022, 『西豐西岔溝-西漢時期東北民族墓地』, 文物出版社.
- 西安市文物保護考古所, 2006, 「西安理工大學西漢壁畫墓發掘簡報」, 『文物』 2006-5.
- 西安市文物保護考古研究院, 2012, 「西安南郊西漢墓發掘簡報」, 『文物』 2012-10.
- 魏豎編, 1998, 『內蒙古中南部漢代墓葬』, 內蒙古文物考古研究所.
- 傅天仇主編, 1988, 『中國美術全集: 彫塑編 2 秦漢彫塑』(The Great Treasury of Chinese Fine Arts: Sculpture 2 Sculpture of The Qin and Han Dynasties), 北京, 人民美術出版社.
-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洛陽發掘隊, 1963, 「洛陽西郊漢墓發掘報告」, 『考古學報』 1963-2.
-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1980, 『滿城漢墓發掘報告』(上·下), 文物出版社.
- 青海省文物考古工作隊, 1981, 「青海大通縣上孫家寨」, 『文物』 1981-2.
- 河北省文物研究所, 1996, 『燕下都』, 北京, 文物出版社, 1996.

- 英文 -

- 띠쉬낀 2011, Alexei A. Tishkin, 2011, Characteristic burials of the xiongnu period at Ialomant-II in the Altai // Xiongnu archaeology perspectives of the first steppe empire in Inner Asia (Jan Bemmann ed., Bonn Contributions to Asian Archaeology BCAA).
- 이반치크 외 2015, Askold Ivanchik and Hermann Parzinger, 2015, The Ulskii Tumuli: Cultic and Burial Ensemble of the Scythian Period in the Northern Caucasus, Paleograph Press: Berlin, Bordeaux, Moscow.

- 露文 -

- 갈라나나 1977, Галанина Л.К., 1977, Скифские древности Поднепровья, САИ Д1-33, Москва, Наука.
- 꼬노발로프 1976, Коновалов П.Б., 1976, Хунну в Забайкалье, Улан-Удэ, Бурятское книжное издательство.
- 그라즈노프 1980, Грязнов М.П., 1980, Аржан царский курган раннескифского времени, Ленинград.
- 다브이도바 1995, Давыдова А.В., 1995, Иволгинский археологический комплекс Том 1: Иволгинское городище,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 딸꼬-그린 채비치 1999, Талько-Грынцевич Ю.Д., 1999, Материалы к палеоэтнологии Забайкалья,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 띠쉬낀 외 2006, Тишкян А.А., Горбунов В.В., 2006, Горный Алтай в хуннуское время; культурно-хронологический анализ археологических материалов, Российская археология.
- 마뜨레닌 2018, Матренин С.С., 2018, История Алтая хуннуско-сянбийско-жужанского времени; классификация и типология, Известия АлтГУ. Исторические науки и археология. № 2(100).
- 마호르트이호 2012, Махортых С.В., 2012, Хронология Перещепинского курганныго могильника близ Бельска, Stratum plus, № 3.
- 멜유꼬바 1989, Мелюкова А.И., 1989, Скифская материальная культура; оружие, конское снаряжение, повозки, навершия, Степи европейской части СССР в скифо-сарматское время, Москва, Наука.
- 모쉬꼬바 1989, Мошкова М.Г., 1989, Среднесарматская культура, Степи европейской части СССР в скифо-сарматское время, Москва, Наука.
- 물로딘 외 2006, Молодин В.И., Парцингер Г., Цэвэндорж Д., Мыльников В.П., Наглер А. и др., 2006, Мультидисциплинарные исследования Российско-Германско-Монгольской экспедиции в Монгольском Алтае, Проблемы археологии, этнографии, антропологии Сибири и сопредельных территорий, Том 12, Институт археологии и этнографии СО РАН, Новосибирск.
- 미나예프 2007, Миняев С.С., 2007, Дырестуйский могильник,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 뻬뜨렌꼬 1967, Петренко В.Г., 1967, Правобережье Среднего Приднепровья в вв. до. н. э., САИ Д1-4.
- 술가 2008, Шульга П.И., 2008, Снаряжение верховой лошади и воинские пояса на Алтае (Часть 1. Раннескифское время), Барнаул, Азбука.
- 아브들가네예프 1994, Абдулганеев М.Т., 1994, Майэмирские курганы Бойтыгема, Археология Горного Алтая, Барнаул.
- 에르몰라예바 1987, Ермолаева А.С., 1987, Измайлловский погребальный комплекс переходного периода от бронзы к раннему железу из восточно-казахстанского Прииртышья, Ранний железный век и средневековье Урало-Иртышского междуречья, Челябинск.

일린스까야 1968, Ильинская В.А., 1968, Скифы днепровского лесостепного левобережья (курганы
Посулья), Киев, Наукова Думка.

출래노바 1992, Членова Н.Л., Культура плиточных могил, Степная полоса Азиатской части СССР в скифо-
сарматское время, Москва, Наука.

About the characteristics and origin of the propeller-shaped bits on the Eurasian continent

Jung, Suk-Bae(Dept. of Archaeology,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In Korea, the question of the origin of propeller-shaped bits is the controversial one, because it was these bits that appeared on the Korean Peninsula before all the others. Propeller-shaped bits are used in such vast territories as the Korean Peninsula, China, and areas of the south of Lake Baikal, in the Altai, and west to the Dnieper River region to north of the Black Sea.

In this paper the situation in which propeller-shaped bits were discovered in each region is examined, their morphological features are studied. The author of this work paid special attention to the shape of the ends of the blade and the shape of the blade itself of propeller-shaped bits. Blades with a sharp end and an end that ends with a line are highlighted. The shape of the blade itself also played a major role in classification.

The situation of the regional distribution of propeller-shaped bits showed that they have quite strong regional features. For example, propeller-shaped bits of type I of the group A, types I and II of the groups B - 1 and B - 2 were found only to the west of the Caspian Sea, namely in the areas of the middle reaches of the Don and the lower reaches of the Volga, in the Kuban region of the North Caucasus, and in the areas of the Dnieper River. It has been confirmed that propeller-shaped bits of type III of the group A and type VII of the group B - 1 are characteristic exclusively for the Korean Peninsula.

Propeller-shaped bits already at the end of the 6th century BC began to be used in the Kuban region, and in the 5th century BC they are used in the areas of the Dnieper River and in the areas of the Don-Volga rivers. They were used in the Pazyryk culture of Altai, which dates back to the 6th–3rd centuries BC. We can find their original form in bits with three holes from the Boytygem-2 burial ground in Altai, that date back to the 8–7th centuries BC or the end of the 7th and beginning of the 6th centuries BC.

Bits similar to the propeller-shaped ones from Korea were found in the Yaloman-2 burial ground of the Hunnu era in Altai, in the Dyrestuisky burial ground in the south of Lake Baikal of the Xiongnu era, in the Yanxiadu monument of the Zhangguo era, and in the Xichagou burial ground of Xifeng county of the Buyeo (Fuyu) time. In general, it can be assumed that propeller-shaped bits that appeared in Altai, on the one hand, are distributed towards Yansiadu, and on the other hand, towards the region south of Lake Baikal and the Xifeng-Yushu regions. Apparently, the propeller-shaped bits from the Korean Peninsula are closely related to the same bits from the Xichagou burial ground of Xifeng, because they are close in both distance and time. However, it is possible that the origin of propeller-shaped bits with a sharp end of the blade is the North Caucasus.

Key words : Harness, bit, bit stopper, propeller type, Eurasian continent